

2014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목련리포트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The World is
a Global Village and
the Peoples of the World
are One Human Family.
May We Strive for
Peace and Humanity
with the Spirit of
Global Cooperation
Society.*

TOWARDS
GLOBAL
EMINENCE

경희대학교

2014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2014년 6월
경희대학교 총장실



목차

발간사

I. 대학의 근본 강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

1. 지속가능한 미래대학 향한 창조와 도전

경희의 학술문화, 탁월성의 미래

- QS 아시아대학평가 30위권 진입 15
- 국제논문 발표, 5년간 2배 이상 늘어 16
- QS 세계대학평가, 경희에 대한 사회 인식 긍정적 변화 16
- 중앙일보 대학평가, 영어학부·철학과·정치외교학과 최상위 선정 17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17
- 학문 분야별 특성에 따른 지원 제도 도입 17

2. '선도적 미래대학'의 새 지평

'학술 경희'의 미래 건설

-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 본격 추진 19
- '대학행정·재정발전계획(안)' 연구안 수립 20

II. 학문과 평화

1. 교육

대형 국책사업 선정

- BK21 플러스 사업, 21개 사업단(팀) 선정 25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6년 연속 선정 25
- 미래부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사업 선정 25

석학 교원 임용

- 슬라보예 지젝 에미넌트 스칼라 26

- 법학전문대학원 허영 석좌교수 26
- 정보디스플레이학과 한민구 석좌교수 26
- 미래문명원 이한구 석좌교수 26

해외 석학 특강

- 슬라보예 지젝 특강 27
- 세계적 석학 대담 Global Dialogue Series 27
- 디팍 초프라 박사·미네스 카파토스 박사 특강 28
-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마이클 게렛 부소장 28

후마니타스칼리지 주요 성과

- 서울시장 특강 29
- 예술교과 학생의 전시·공연, 교외 활동으로 확장 29
- 총장과 학생들의 독서토론 '스무 살, 함께 상상하다' 29

교육 부문 주요 성과

- 건축학과, 한국건축학교육인증 최고 등급 '5년 인증' 획득 31
-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31
- 정년연장교원 5명 선정 31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운영 31
-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합격률 2년 연속 1위 31

2. 연구

연구 성과, 세계적 학술지 게재

- 유태경 교수, 〈사이언스〉 논문 게재 33
- 김정희·김정목 교수, 〈셀〉 논문 발표 33
- 이은진 교수, 〈셀〉 논문 게재 34
- 정인화 교수, 〈네이처〉 논문 발표 34
- 김효종 교수,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논문 게재 34

대형 국책과제 수주

- 이태후 교수팀, '산업융합기반 구축사업' 선정 35
- 손영숙 교수팀, '질환극복 기술개발사업' 선정 35
- 이상호 교수 연구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선정 36
- 허의남 교수, '대학I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 선정 36

학생 연구 성과

- 박광희·최원훈 학생,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37
- 시그마팀, 큐브위성 경연대회 최종 개발팀 선정 37
- 최유진 학생, SCI 학술지 <보완대체요법> 논문 게재 37

연구 부문 주요 성과

-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 2·3기 발사 성공 38
- 차세대미디어전송기술 국제표준안 채택 38
- 실감형 유비쿼터스 IPTV 연구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수상 38
- 김선국·김우식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 39
- 2013 경희 Fellow 10명 임명 39
-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오토피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39

3. 실천

지구사회봉사단(GSC) 활동

- KOICA 국제개발협력사업 2차년도 사업자 선정 41
- 지구사회봉사단과 후마니타스칼리지 연계 활동 41
- 경희 물려산타 페스티벌 42
- 지구사회봉사단 학생 사회공헌 실천팀 42
- 청양 'Happy Village' 국내봉사단 42
- UNAI ASPIRE Kyung Hee 43
- Kyung Hee Magnolia Peace Village Initiative 43
- 한국장학재단 멘토링 프로그램 유치 43

실천 부문 주요 성과

- 미원 조영식 박사, 세계평화 선구자 20인 선정 44
-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교육부 장관상 수상 44
- Peace BAR Festival 2013 44
- 경희대학교-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류 협력 협약 45
- 유엔·국제기구 인턴십 학생 선발 45

4. 의과학

의료기관

- 문화복지 공간 '전면 플라자' 건립 추진 47
-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선정 47

의과학 부문 주요 성과

- 이상훈 교수, 희귀 경추 변형 교정수술 성공 48
- 장건호·류창우 교수팀, 새로운 뇌 기능 fMRI 기법 개발 48
-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연구 국제인증 획득 48
- 박동석 교수, 대통령 한방주치의 위촉 48

국내외 의료봉사

- 경희 의료기관, 전 세계에서 봉사 활동 49
- 의학계열 동아리·의료기관 봉사 활동 49
- 경희의료원, 필리핀 의료봉사단 파견 49

III. 세계와 경희

1. 국제화

해외 파견 및 교류협력

- 12개국 18개 대학과 신규 교류협정 체결 53
- 교환학생 파견 및 초청 53
- 70개국 2,276명 외국인 학위과정 등록 54
- 영어트랙을 통한 외국인 신·편입생 유치 54
- Global Collaborative 2013 Summer Program 54
- 국제교육원 다국가 학생 유치 확대 54

국제화 부문 주요 성과

- 한국어과정 개설 2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 55
- 제16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55
- 경희대학교 JAPAN DAY 55
- 유엔 세계 빌슨 만델라의 날 기념 강연 55

IV. 창조와 도약

1. 행정·복지·인프라

행정

- 국가고객만족도(NCSI) 사람대 2위 59
- 성금캠페인 통합기구 '경희미래위원회' 발족 59
- 유관부서 협업 통해 학술행정 프로젝트 추진 60
- 성금캠페인 '글로벌 트러스트' 추진 60
- 'Infor21' 사업·학술행정연구원 추진 60
- 경희-스탠퍼드대 학술행정 세미나 60

복지·인프라

-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식당 새 단장 61
- 예술·디자인대학관 로비 환경 개선 61
- 서울·국제캠퍼스 교차화상강의 시행 61
- 캠퍼스 무선랜(KHU Wi-Fi) 시스템 구축 61

- 국문 홈페이지 개편, 소통 창구 역할 활성화 61

2. 대학문화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

- 2013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경희의 학술세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63
- 2013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미래대학의 창조적 리더십: 학술과 재정' 64
- 2013 경희의료원 노·사 합동 연찬회 64

기부문화 확산

- 윤도준 동문, 장학금 1억 원 기부 65
- 공인회계사 준비반 '청현재' 졸업생 20명 기부 약정 65
- 지구사회봉사단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1기 32명, 사회봉사기금 기부 65
- 경희대-유엔난민기구 필리핀 태풍 피해 긴급구호 지원 65
- 경희의료원·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임금 인상분 50% 발전기금 기부 65

대학문화 부문 주요 성과

-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1주기 추모 원탁회의 개최 66
- 환대의 축전, 2013학년도 입학식 66
- 경희대학교 초청 고교 교장 간담회 개최 66
- 매그놀리아 2013, 목련회의·목련예술제 67
-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발간 67
- 제3회 흥릉포럼, '흥릉, 도시문명의 미래' 주제로 개최 67

3. 전진하는 경희

체육부 연이은 선전

-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금 7, 은 4, 동 9 69
- 제30회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남녀 단체 2년 연속 동반 우승 69
- 제68회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 남자대학부 우승 69

학생 수상 소식

- 김재현·박성준 학생, 신춘문예 시·평론부문 당선 70
- 양하늘 학생, 한국관광홍보 UCC 및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70
- 서지혜 학생, 정부학자금지원수기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70
- 김은영 학생,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70
- 교육부 방과후 교육기부 활동 공모 최우수팀 선정 70

교외 활동 성과

- 이지나 학생, 한의사 국가시험 수석 합격 71
- 무용학부 황찬용 학생, KDF 장학생으로 세계무대 진출 71
- 김민이 학생, 동해 표기 위키피디아 오류 수정 71
- 경희대 학생들, '과외협동조합' 설립 71

사자와 목련

총장 365일 74

총장 연설문 76

통계로 본 경희 2013 100

경희대학교 기구표 101



구성원의 꿈과 대학의 가치 어우러진 미래대학

학문의 끝없는 여정을 향해 정진하는 교수진. 그런 스승의 가르침과 함께 더 나은 자신과 사회, 세계를 꿈꾸는 제자. 학문적 열정을 성심껏 지원하는 대학행정. 누구나 바라는 '대학다운 대학'의 모습입니다. 경희가 추구하는 대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경희는 구성원이 원하는 대학의 미래상과 대학의 근본 소명, 핵심가치가 어우러진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13년에도 경희의 도전은 거듭됐습니다. 대학의 근본가치를 더욱 강화해 지속가능한 미래대학 건설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먼저 연구 부문에 괄목할 만한 성취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이어 국내 최초 탐사용 인공위성 시네마 2, 3호기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교육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국내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실천과 봉사 면에서도 경희인의 따뜻한 손길이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에 의료봉사단이 다녀왔습니다. 지구사회봉사단(GSC)은 교육 기부 기관 중 가장 영예로운 상을 수상했습니다. 구성원의 학술적 열정과 의지, 포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을 본격 추진했습니다. 대학의 핵심가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대학 발전을 이끌어갈 행·재정 혁신안 '대학행정·재정발전계획(안)'도 연구했습니다.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개교 65주년을 맞는 2014년, 경희는 대학의 근본가치 강화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지향하는 철학과 기초를 더욱 강화해 구성원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문화, 긍지와 포부를 느끼는 행정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구성원의 꿈과 대학의 가치가 어우러진 미래대학으로의 여정, 모두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14년 6월

목련리포트 편집위원회

KYUNG HEE UNIVERSITY

대학의 근본 강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길





지속가능한 미래대학 향한 창조와 도전

경희는 그간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목표로, 대학의 기본 역량 강화와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학술의 탁월성에 주력해왔다. 아울러 더 나은 문명의 미래를 향한 열정을 키워왔다. 교육, 연구, 실천, 행정 등 대학의 전 영역에서 거둔 성취를 기반으로 2013년에는 대학의 근본가치를 더욱 강화해 지속가능한 미래대학 건설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세계 200위권, 아시아 30위권 대학에 오르며 학술 역량의 질적 성장을 입증하고, 도약하고 있는 경희의 위상을 확인했다. 우수 교원을 적극 영입하고, 맞춤형 연구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확대·도입해 학술진흥 문화를 육성해온 결과다.

경희의 학술문화, 탁월성의 미래

QS 아시아대학평가 30위권 진입

‘2013 QS 아시아대학평가’를 통해 연구와 교육의 질적 성장을 재확인했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전문기관 QS(Quacquarelli Symonds)와 조선일보가 공동 실시한 ‘2013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경희는 2012년보다 6계단 오른 35위를 차지했다. 국내 대학 중에서 전체 7위(종합대학 5위)에 해당하는 순위다. 경희는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2010년 62위를 기록한 뒤, 매년 20계단, 1계단, 6계단 올라 2013년 처음으로 30위권에 진입했다.

이번 평가에서 경희는 연구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학계 평가와 졸업생 평판도 상승이라는 고무적인 결과를 얻었다. 학계 평가의 경우, 경희는 2010년 97위에서 2013년 47위로 상승했다. 경희 졸업생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평판도 역시 같은 기간 113위에서 48위로 크게 높아졌다. 학계 평가와 졸업생 평판도는 단기간 집중 투자로 성과가 나타나는 지표가 아니다. 2007년부터 경희는 연구와 교육의 탁월성을 추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왔다. 국내외 석학(碩學), 거장(巨匠), 대가(大家)를 포함한 우수 교원도 적극 영입했다. 지난 6년간 학생 수는 동일한 3만 2,000명 규모인데 비해 교수진은 2007년 1,213명에서 2012년 1,485명으로 늘었고, 우수 외국인 교원은 같은 기간 74명에서 15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교원확보율은 2013년 현재 103.55%에 달한다.

경희는 국내 대학 최초로 정년연장과 종신임용 제도를 도입하며 연령 제한이 없는 학문 활동, 자유로운 학술 교류가 이뤄지는 학술문화를 지향하는 한편, 학문을 향한 구성원의 열정과 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다. 전공별·계열별·개인별 맞춤형 연구지원체도를 도입하는 등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후마니타스칼리지를 통한 교양교육의 혁신, 융복합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습지원체계를 개선했다. 학술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자율운영체도를 전면 실시하는 등 행정체계의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10~2013년 경희의 QS 아시아대학평가 순위





국제논문 발표, 5년간 2배 이상 늘어

경희가 학술문화 진흥을 위해 펼쳐온 문화적·제도적·행정적 차원의 지원은 학술적 성취로 이어졌다. 특히, 국제논문 발표가 늘어났다. 세계 최대 규모의 초록·인용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SCOPUS),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등 경희의 국제논문 발표는 2007년 344편에서 2011년 771편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부터는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 <셀(Cell)>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논문을 발표하는 횟수도 늘었다.

스코퍼스에 2007~2011년 5년간 등재된 논문 수에서도 경희는 23.51%의 성장률을 기록, 상위 50위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기업체 포함)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2012년 12월 엘스비어 코리아(Elsevier Korea)는 <Research Trends & Performance>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하고 '경희대의 논문 성장률이 가장 눈에 띈다'고 발표했다. 국내 연구기관 순위에서 1~7위에 오른 대학의 논문 성장률이 4.16~9%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희의 성장률은 단연 돋보적이다.

QS 세계대학평가, 경희에 대한 사회 인식 긍정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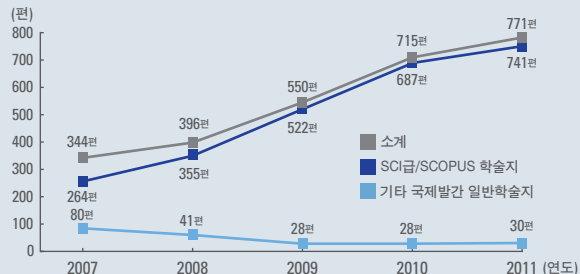
'2013 QS 세계대학평가'에서 2012년보다 15계단 상승한 255위를 차지했다. 경희는 2011년 처음 세계 200위권에 진입한 후, 200위권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학술 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과 연구의 질적 성장을 이뤘던 경희는 QS 세계대학평가에서 5년간(2007~2011년) 259계단 뛰어 올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성장의 결과, 2013년에는 전 세계 기업 인사 담당자 2만 7,957명이 참여한 졸업생 평판도 조사에서 2012년보다 27계단 뛰어오르며 139위를 기록했다. 꾸준히 학술 역량을 강화해온 경희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희는 2013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학계 평가, 졸업생 평판도, 교수 1인당 학생 수 등 6개 지표의 점수가 모두 향상됐다. 특히, 졸업생 평판도는 11.9점 큰 폭의 점수 상승으로 순위도 27계단 올랐다. 명성과 관행적 통념 등의 영향으로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는 평판도가 상승한 것은 고무적이다.

경희의 국제논문 발표 현황

SCOPUS 논문 성장률 (2007~2011년)

대학	성장률(%)	논문 수(편)
경희대	23.51	8,926
성균관대	9	14,711
고려대	7.83	16,463
연세대	7.39	19,829
부산대	7.24	9,265
서울대	6.63	32,445
카이스트	4.37	14,641
한양대	4.16	12,011

국제학술지 논문 수



중앙일보 대학평가, 영어학부·철학과·정치외교학과 최상위 선정

영어학부, 철학과, 정치외교학과 등 3개 학과가 '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최상위권에 올랐다. 철학과는 전국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최상위권으로 평가됐고, 영어학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최상위권 대학은 해당 학과가 운영되는 전국 대학 중 교수당 학생 수, 논문 수, 학생당 장학금, 취업률 등 9개 지표의 종합 점수가 상위 2.28%에 드는 대학을 말한다. 학과평가는 전국 138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희는 교수역량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철학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교수 1인당 논문 수가 0.34편으로 전국 47개 대학 중 가장 많았다. 이는 타 대학의 0~0.19편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연구 성과다. 정치외교학과는 국제학술지 논문 수는 교수 1인당 0.34편으로 전국 41개 대학 중 2위를 차지했다. 영어학부도 한국연구재단 논문 수와 국제학술지 논문 수 등 교수의 연구 역량에서 탁월한 성취를 거뒀다.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최우수대학 선정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고려대(본교), 연세대(본교), 성균관대, 중앙대 등이 포함된 '수도권 1만 명 이상 대형 사립대학' 그룹에서 1위를 차지한 경희대는 2013년 7월 '2013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으로 22억 3,100만 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4억 7,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받게 됐다. (참조 25쪽)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은 학부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대학이 우수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발굴·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매년 전년도 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인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경희는 창의적 교육역량강화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사업 운영·관리로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연속 이 사업에 선정됐고, 성과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12년에는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우수교육프로그램 공모에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심화 '아레테(Arete)'가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학문 분야별 특성에 따른 지원 제도 도입

학과 및 대학(원)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 전공별·계열별·개인별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맞춤형 연구지원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했다. 맞춤형 연구지원제도는 학술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경희의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학술진흥 2020' 계획의 하나다. 연구자는 연구 목적에 적합한 조건을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은 심사 후 합당한 연구비를 지원한다.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차등 지급도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했다.

맞춤형 연구지원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2012년 10월 열린 제7차 합동교무위원회다. 당시 조인원 총장은 "더 나은 대학의 미래를 위해 학술 부분의 다양성과 탁월성을 이뤄내는 것이 대학의 근본가치"라며 "학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학과, 교수 한 분 한 분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도적 미래대학’의 새 지평

개교 65주년을 맞는 2014년, 경희는 대학의 근본에 관해 성찰하며 대학의 핵심가치를 강화해 ‘대학다운 미래대학’, ‘선도적 미래대학’의 새 지평을 연다. 이를 뒷받침할 창의적 교육과 연구 활동의 터전이 될 인프라,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이 2013년 서울캠퍼스 인허가 첫 단계가 완료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2013년에는 대학의 핵심가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대학 발전을 이끌어 갈 행정적·재정적 혁신안 ‘대학행정·재정발전계획(안)’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안도 수립했다. ‘Space21’과 대학행정·재정발전계획(안)을 통해 경희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 발전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

‘학술 경희’의 미래 건설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 본격 추진

‘학술 경희’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이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과 국제캠퍼스 디자인은 소통성, 안전성, 친환경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 ‘Space21’ 사업은 인허가 및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된 학교는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접수하고, 이 안이 승인돼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되면 실시계획인가(건축허가 의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신축 건물이 기존 건물 규모의 30% 이상을 차지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건축허가 순으로 인허가가 완료되면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캠퍼스는 2013년 8월 28일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서울시에 접수, 2014년 1월 2일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됐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2월 11일 완료됐다. 서울캠퍼스는 인공적으로 구릉을 깎아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간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 환경친화적 캠퍼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경희의 미래’를 상징하게 될 글로벌타워는 노천극장의 무대 자리에 붉은색 원통형 건물로 지어진다. 노천극장 부지에는 글로벌광장이 들어선다. 대운동장 스탠드 일부와 농구장 부지에는 한의과대학과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이 사용할 건물이 배치된다. 문화복지회관(가칭)은 선승문 부근, 기숙사는 대운동장 스탠드의 본부석 부근에 신축된다. 이 건물들은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내부와 외부, 건물과 건물이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지형의 높낮이를 이용, 건물 사이에 열주회랑·중정 등을 배치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국제캠퍼스는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따른 건축허가가 2010년에 이미 완료된 상태다. 일부 신축 건물은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 중이며, 향후 인허가 단계에서 변경된 계획을 반영한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국제캠퍼스는 공과대학 신축 예정 부지가 전자정보대학 옆 야구장 위치



로 확정됨에 따라 야구장, 축구장, 럭비장 등 옥외체육시설 공사를 진행해 2013년 8월 완료했다. 이로 인해 본공사 착공 전 전체 공사기간 중 5~6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국제캠퍼스 'Space21' 사업은 공과대학과 종합체육관을 신축하고, 외국어대학을 증축·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종합체육관은 학생회관 뒤편에 신설된다. 이 건물들은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고전적인 디자인과 향후 증축을 고려한 설계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

‘대학행정·재정발전계획(안)’ 연구안 수립



대학의 핵심가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대학 발전을 이끌어 갈 ‘대학행정·재정발전계획(안)’(이하 발전계획안) 연구안을 수립했다. 발전계획안은 특별위원회가 교육, 연구, 행정, 재정 분야 개선에 초점을 두고 마련한 것으로, 대학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경희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발전계획안은 2014년 2월 20일 ‘2014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에서 발표됐으며, 구성원과의 소통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발전계획안 수립에 앞서 경희는 2013년 11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학행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학 운영 전반을 점검한 후, 발전계획안 및 대학재정확충방안 초안을 작성했다. 발전계획안 및 대학재정확충방안 초안은 ‘2013학년도 대학평의원회 5차 회의’에서 보고됐다. 이 자리에서 발전계획안 및 대학재정확충방안 초안을 보고한 것은 적극적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대학평의원회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그리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술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학생, 교수, 직원이 참여한다. 이날 구성원은 발전계획안 및 대학재정확충방안이 경희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방향에서 구성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발전계획안은 다섯 가지 철학과 기초 위에 수립됐다. 첫째, 대학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의 핵심 가치를 강화한다. 둘째, 고등교육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셋째, 합리적 예산 및 정책 조정으로 재정 안정화를 구현한다. 넷째, 대학 행정 구조의 적정화를 위한 교육·연구·행정·재정 분야별 제도를 개선한다. 다섯째, 구성원의 공감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단계적 계획을 수립한다. 이 같은 철학과 기초로 수립된 발전계획안에는 거버넌스, 직원규모, 자율운영제도, 책임시수, 강좌규모, 교원규모, 연구지원제도, 장학제도, 학생 총원, 예산제도, 재원확충 등 대학 운영 전 영역의 창조적 혁신 방안이 포함된 세부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교육 분야의 핵심은 교원, 학생, 강좌 규모의 적정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강의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임교원확보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석학급 우수교원을 총원하고, 전임교원의 책임시수와 강좌 규모를 조정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인프라 구축→제도 개선→연구 성과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연구활동 지원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행정 분야는 정책과 예산 기능을 통합하고,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행정 편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간소화된 행정 절차가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된다. 재정 분야는 크게 균형예산을 위한 예산제도 개선과 재정 확충,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KYUNG HEE UNIVERSITY

학문과 평화





교육

대학의 근본 사명은 학술적 탁월성으로 인류와 문명에 기여하는 것이다. 경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연구·실천이 창조적으로 결합된 ‘학문과 평화’의 전통 위에서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지구적 존엄(Global Eminence)을 구현해왔다. 그 결과, 각종 대형 국책사업에 선정됐고, 교육 프로그램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각종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외 석학(碩學), 대가(大家), 거장(巨匠)을 포함한 우수 교원을 적극 영입해 학술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를 통한 교양교육의 혁신, 융복합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습지원체계도 개선했다.

대형 국책사업 선정

BK21 플러스 사업, 21개 사업단(팀) 선정

‘BK21 플러스 미래기반 창의 인재 양성사업’과 ‘BK21 플러스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에 21개 사업단(팀)이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7년 동안 지원받는 금액은 연간 80억 4,700만 원에 달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BK21 플러스 사업’은 대학원 교육의 활성화와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앞서 2단계 BK21 사업 종료로 앞두고 실시된 종합평가 결과, 16개 사업단(팀)이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 디스플레이 응용을 위한 프린팅 기초 기술 연구 사업팀은 5년 연속 연차평가 1위를 유지하고 종합평가에서도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연구 탁월성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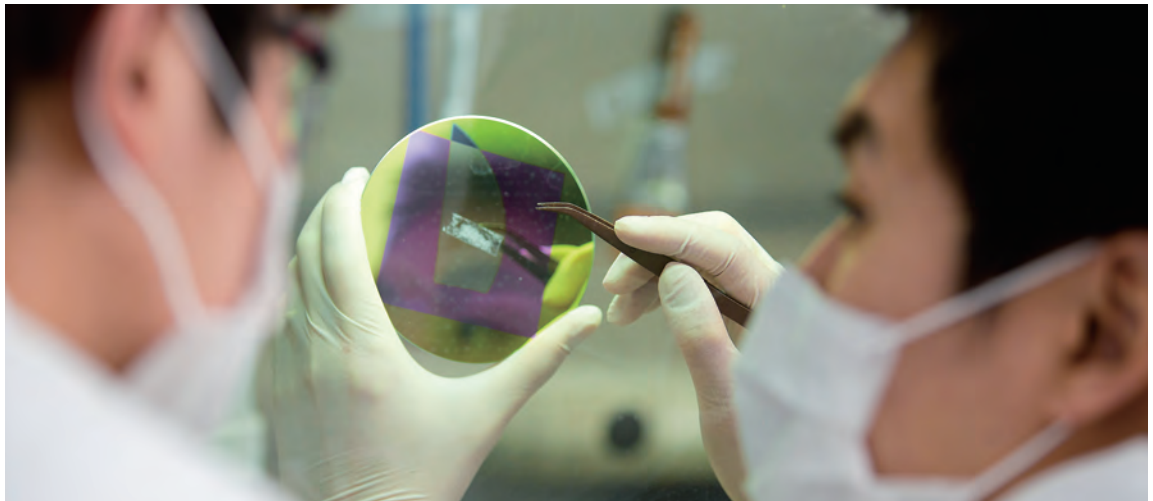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6년 연속 선정

2013년 7월 10일, 교육부의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됐다. 교육여건과 성과를 정량평가한 2013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1단계 평가 결과, 경희는 사업에 지원한 150개 대학 중 상위 72개교에 포함돼 지원을 조기 확정지었다.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교육 분야 최대의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교육부는 2008년부터 국내 고등교육의 질과 국제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대학을 선정하고 자체발전계획을 지원해왔다.

미래부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사업 선정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사업에 선정, 10년간 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연구장비 전문가를 육성한다. 연구장비 엔지니어는 장비를 운용해 데이터를 산출하고 해석,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미래부는 체계적인 연구장비 전문교육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인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석학 교원 임용

슬라보예 지젝 에미넌트 스칼라



세계적인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을 2013년 7월,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에미넌트 스칼라(Eminent Scholar)로 임용했다. 에미넌트 스칼라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를 초빙해 경희의 공동연구 기반을 다지고, 학생들에게 우수한 학문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경희와 지젝의 인연은 2012년 6월 27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석학초청특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연사로 나선 지젝의 강연에 3,5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했다.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이택광 교수는 "평소 한국 사회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던 지젝이 석학초청특강에 참석한 청중에 고무돼 경희의 에미넌트 스칼라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허영 석좌교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허영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임명됐다. 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진 헌법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허영 석좌교수는 1959년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 1972년 경희에서 교수직을 시작했다. 이후 독일 본대학교, 바이로이트대학교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 독일 훔볼트재단 국제학술상을 수상하고 2007년 본대학교로부터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 한민구 석좌교수



이과대학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석좌교수에 한민구 교수가 임명됐다. 한민구 교수는 1979년 뉴욕주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정질실리콘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TFT)와 박막 태양전지 연구를 시작해 이 분야에서 1세대 연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한국나노기술연구협의회 회장, 한국공학한림원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학회활동도 펼쳐왔다. 그는 대한민국 학술원상, 한국공학상,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 세계적 권위의 디스플레이학회 SID 펠로우 어워드,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해 학술적 탁월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미래문명원 이한구 석좌교수



미래문명원은 이한구 교수를 석좌교수로 초빙했다. 이한구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교육부 고등교육 추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철학회 회장,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인문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경희대학교 석좌교수로 초빙된 이후에도 문명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초학제적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 지원사업에 응모, 2013년 10월부터 연간 1억 원을 3년간 지원받아 '인류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탐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 석학 특강

슬라보예 지젝 특강

에미넌트 스칼라 슬라보예 지젝 교수가 2013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세 차례 특강을 펼쳤다. 24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첫 번째 특강에서 지젝은 철학과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글로벌 자본주의의 실체를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제시했다. 이날 3,500여 명의 청중이 몰려 좌석을 가득 채웠다.

지젝은 25일 강남 플레톤콘서트홀에서 열린 강연에 이어, 26일 크라운관에서 세 번째 특강을 들려줬다. 특강에서 지젝은 현대문명의 이데올로기 문제점을 지적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서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이라면서 “무지 또한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지젝은 “자신이 느끼는 쾌락이 외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요된 쾌락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의 지식이 빠르게 성장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고립될 것”이라면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점차 무기력해지고 기계에 의해 조종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윤리적 통제 밖에서 과학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미친 세상에 대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특강에서 지젝은 “경희대가 여전히 인문학을 강조하는 몇 안 되는 대학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최근 유럽에서는 불필요한 일을 하는 철학자는 필요 없고 실제로 유용한 지식을 가져다 줄 과학이 필요하다”면서 “철학과 과학을 이성의 사적인 이용에 종속시키는 고등교육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세계적 석학 대담 Global Dialogue Series

2013년부터 석학과의 대담 'Global Dialogue Series'를 새로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구적 문제에 대한 석학들의 생각을 세계시민과 공유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성찰과 대안 모색의 기회를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담은 경희대와 경희사이버대 홈페이지 웹캐스트로 생중계됐다.

첫 번째 대담은 7월 16일에 개최됐다. 유엔지구협약 창시자이자 기업윤리철학 분야의 석학인 올리버 윌리엄스 미국 노트르담대 교수(경희대 International Scholar)와 이병남 LG 인화원장이 참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기업 경영의 시대적 소명에 관한 성찰'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윌리엄스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해 “과거에는 인류학적인 자선활동을 의미했지만, 비즈니스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진 오늘날 CSR은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역사회를 비롯해 직원,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7월 22일 열린 두 번째 대담에는 국제정치·외교정책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 석좌교수(경희대 Eminent Scholar), 동아시아지역 안보 전문가인 주평 중국 베이징대 교수가 참석했다. 대담 주제는 '중국의 부상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미래'였다. 존 아이켄베리 교수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동아시아 안보 문제를 우려하며 “갈등을 막기





위해 동아시아 각 나라가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방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화된 규약을 만드는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팍 초프라 박사·미네스 카파토스 박사 특강



심신치유의학 분야의 석학 디팍 초프라 박사와 저명 물리학자인 미네스 카파토스 박사 초청 특강이 '우주, 마음과 몸 치유에 대한 과학적 통찰'을 주제로 2013년 3월 12일 서울캠퍼스 오비스홀 111호에서 열렸다. 디팍 초프라 박사와 미네스 카파토스 박사는 의학·과학·인문학 등을 아우르는 학제 간 소통과 융합을 지향하며 연구와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미네스 카파토스 박사는 "한 분야에 국한된 연구로는 질병을 치유하기 어렵다"며 음과 양, 남과 여 등 극과 극으로 보이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기 치료 같은 동양적인 치료를 할 때 서양 의학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의학은 치료 받는 사람의 의도와도 관련이 있다"면서 "질병을 다룰 때 질병만 볼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의도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마이클 게렛 부소장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 네 번째 특강이 2013년 6월 25일 서울캠퍼스 오비스홀 111호에서 개최됐다. 연사로 초청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Institute for Advanced Study, IAS) 마이클 게렛 부소장은 '고등연구소 운영 현황과 기금 모금'을 주제로 강연했다. 26일에는 기금 모금 관련 초담회에 참석, 기금 모금 사례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끈 경영 노하우를 들려줬다. "기금 모금이 연구기관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마이클 게렛 부소장은 "연구기관은 비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그에 공감하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는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융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특강시리즈다. 세계적인 학술기관의 석학과 리더를 초청해 해당 학술기관의 독자적인 기관운영 철학과 비전, 거버넌스, 발전전략 등을 공유한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주요 성과

서울시장 특강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서울시민대학이 2013년 12월 2일 평화의 전당에서 서울시장 특강 ‘미래도시, 미래대학 - 새로운 즐거움(樂)과 배움(學)을 찾아서’를 진행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의 교육 경험과 서울시의 행정경험을 공유한 이번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연자로 참여, ‘성찰의 힘과 시민력이 살아있는 따뜻한 소통의 도시, 서울’을 주제로 강연했다. 특강에는 경희대 학생 900여 명, 서울시민대학 수강생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인원 총장은 환영사에서 “미래대학은 현실과 유리된 상아탑을 넘어, 더 나은 인류와 지구, 문명의 미래를 열어갈 학문의 축적과 실천을 병행하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전한 뒤, “미래로 시야를 넓히면서, 자신과 타자, 세계를 위한 창의적 학문의 길을 열어가는 것은 대학에 주어진 과제이자 새로운 도전”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인간의 내적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배움, 인문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그간 펼쳐온 사람 중심의 인본행정, 소통의 참여행정과 관련된 시정 방안을 소개하고 “이 같은 행정으로 인문학적 가치를 구현해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인문학으로 성장한 시민력은 혁신 행정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예술교과 학생의 전시·공연, 교외 활동으로 확장

후마니타스칼리지 예술교과 수강생들의 전시와 공연 활동이 교내를 넘어 교외로 이어지고 있다. ‘영화 속 그림 읽기’ 수업을 들은 학생 114명은 2013년 3월 1일부터 4일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동작품 ‘나의 미래’를 선보였다. 작품 ‘나의 미래’는 학생 개인과 공동작품 119개를 모아 이크로 배치해 하나의 태극기를 만들어낸다. 법학, 경제, 한의학, 국문, 철학 등 미술 비전공자가 대부분이었던 수강생들은 A4 사이즈 화판에 자화상을 담았고, 개인 작품들을 모아 소통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태극기를 완성했다. 퓨전 공연예술경영 수업인 ‘오페라마 (Operama, 오페라와 드라마를 접목한 극예술)’ 수강 학생 50명은 2012년 12월 22일 마지막 수업시간에 한 학기 동안 제작·연출한 오페라마 ‘손노(Sogno, 부제 : 나는 꿈이 있다)’를 서울 압구정 브라운갤러리 무대에 올렸다. 2013년 6월에는 상명대학교 재학생과 함께 독도를 주제로 한 ‘싱포유(Sing for you)’를 공연했다.



총장과 학생들의 독서토론 ‘스무 살, 함께 상상하다’

후마니타스칼리지 스터디그룹 ‘아레테(Arete)’가 2013년 6월 5일 북토크 ‘스무 살, 함께 상상하다’를 개최했다. 학생들의 자생적 스터디그룹 아레테는 2011년 3월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설립된 후 중핵교과 수강생들의 제안과 대학 지원 아래 2012년에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 스스로 스터디에 참여하고 모임을 운영하며 스스로 공부하는 학술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북토크 역시 독서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들이 기획했다. 학생들은 2013년 2월 ‘총장님과의 토론’을



제안했고, 조인원 총장은 학생들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

북토크는 사전에 텍스트를 공지해 참가자들이 관련 내용을 공유한 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북토크에 앞서 학생들은 조인원 총장이 선정한 로베르토 움거의 저서 <주체의 각성>, 영화 <레미제라블>,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의 <필라델피아 자유메달 수상 연설문>을 읽고 행사에 참여했다.

북토크에서 많은 학생들이 취업과 진로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조인원 총장은 자기성찰의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학생들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인간은 무한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나 너머 나’, ‘또 다른 나’의 여정을 확인해가는 존재”라면서 “일상의 무게와 ‘모름’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번민과 성찰을 거듭하는 단계가 ‘젊음’의 시기”라고 말했다. “나와 타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하고, 성찰적 의식을 만들어가는 것은 고통스런 과정이지만, 결국 본인의 몫”이라고 강조한 뒤, “성찰 과정에 다양한 사상과 철학, 위대한 저서와 연설, 탁월한 시와 소설 등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단,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고,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창조적인 삶의 기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토크는 대학의 역할, 학문하는 자세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조인원 총장은 “인간 수명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배움은 평생에 걸쳐 필요한 과정”이라며 “평생 학습, 자기 성찰, 자기 창조의 노력”을 강조했다. “영원히 부족한 존재인 개인이 자신의 학술 역량을 키우고, 더 큰 자아를 만드는 것은 더 원숙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면서 “대학은 더 나은 자아와 세계를 성찰하고, 더 나은 인간과 문명을 위해 학술과 실천의 결합을 지향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총장은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 배우고 학습하는 대학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면서 “항상 ‘미흡한 나’,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하며, ‘더 큰 배움의 길’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경희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교육 부문 주요 성과

건축학과, 한국건축학교육인증 최고 등급 '5년 인증' 획득

건축학과가 한국건축학교육인증 최고 등급인 '5년 인증'을 획득했다. 향후 5년간 건축학과 학생들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과 함께 건축사예비시험 면제, 건축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조건인 실무경력 5년이 3년으로 단축되는 혜택을 받게 됐다. 2012년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인증평가 '5년 인증' 획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전국 로스쿨 인증평가'에서 '5년 인증'을 획득했다. 경희대는 교육과정 운영체계의 효율성, 학사관리의 엄정성, 실무필수 과목의 적절성과 충실성, 국제화 및 특성화, 도서관 및 학술정보 확보, 재정조달의 적절성, 재정분배의 적절성, 관련 학위과정 운영 등 8개 세부 항목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25개 평가 대상 대학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교육과정 편제, 학사관리의 엄정성, 기존 법학부 과정의 교육 등 3개 항목은 우수 사례에도 선정됐다.



정년연장교원 5명 선정

일본어학과 미노와 요시쓰구 명예교수, 전자·전파공학과 조원경 명예교수, 화학공학과 정석진 명예교수, 의학전문대학원 허주엽 명예교수, 한의학과 이경섭 명예교수가 2013년 정년연장교원으로 선정됐다. 정년연장제도는 교육·연구·실천 분야에서 업적이 탁월한 교원의 정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다. 5명의 교원은 정년 전 10년간의 업적 평가에서 5년 이상 상위 25%를 차지(단, 2011년 8월~2013년 8월 정년퇴임 교원은 상위 40%)해 정년이 연장됐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운영

경희대는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인정받아 2011년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ACE)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 중이다. 2013년 실시된 중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013년 기본사업비 24억 원에 9,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았다. ACE 사업은 학부교육의 선진화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경희는 2014년까지 이 사업을 운영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합격률 2년 연속 1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경희대는 제2회 변호사 시험에 졸업생 52명이 지원해 51명이 합격, 응시자 대비 합격률 98.1%로 전국 로스쿨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냈다. 2012년에 치러진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로스쿨 첫 졸업생 50명 전원 이 합격해 100% 합격률을 달성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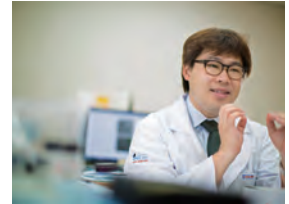
연구

지난 7년간 학술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해온 경희는 2013년 연구 역량의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 <네이처(Nature)>, <사이언스(Science)>, <셀(Cell)>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횟수도 늘었고,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실 인턴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논문 발표도 이어졌다. 그간 쌓아온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공동연구과제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의 대형 국책과제를 수주했다. 2012년 9월 국내 최초로 우주탐사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 1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데 이어, 2013년 11월 시네마 2기와 3기를 우주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 성과, 세계적 학술지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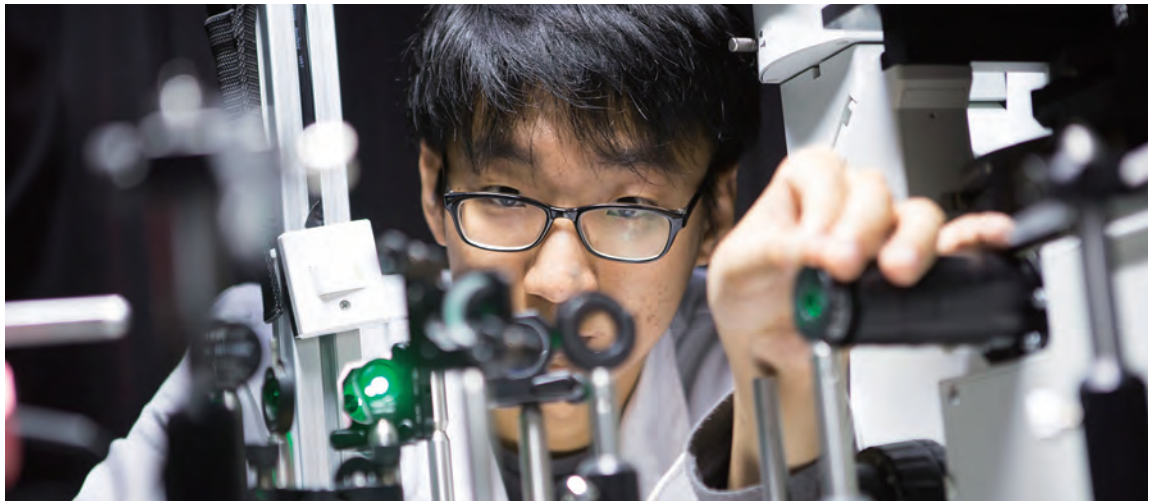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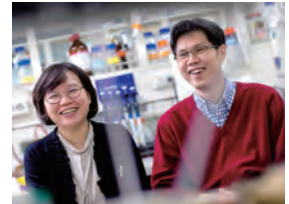
유태경 교수, <사이언스> 논문 게재

화학공학과 유태경 교수 연구팀이 산화물 나노입자의 갈바닉 부식 작용기전을 규명해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에 논문을 게재했다. 금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알려진 갈바닉 부식이 금속산화물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최초로 발견·증명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고효율 배터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이 갈바닉 부식을 통해 만든 속이 빈 산화철 나노구조체는 물질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수축과 팽창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여, 기존 리튬이온전지에 적용 시 획기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저장 용량을 최대 3배로 높였으며,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성능이 저하되는 리튬이온전지의 단점도 극복했다. 유태경 교수는 “속이 빈 산화물 나노구조체는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 산업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산화물의 종류가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희·김정목 교수, <셀> 논문 발표

치의학전문대학원 김정희·김정목 교수 연구팀이 영양분 결핍에 처한 세포의 자가포식 원리를 규명해 <셀> 2013년 1월 17일자에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세포가 자극을 어떻게 인지하고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는지에 의문을 갖고, 다양한 종류의 자극 중에서 영양분 결핍에 대한 분자 작용을 추적했다. 그 결과, 활성화 단백질 인산화 효소(AMPK)가 에너지 결핍을 인지하고, 효소(Vps34) 복합체를 조절해 자가포식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가포식은 세포가 자극을 받으면 물질을 스스로 분해해 살아남기 위한 영양분을 얻어 약조건에 견디는 과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메커니즘을 규명해 당뇨, 암, 치주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것과 함께 치전원의 연구 범위가 치아와 치주를 넘어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에는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 연구팀이 참여했다.





이은진 교수, <셀> 논문 게재

유전공학과 이은진 교수가 살모넬라균의 생존 메커니즘을 밝혀, 장티푸스 등 관련 질병 예방과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미국 예일대 에드워드 그로이스먼 박사팀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 결과는 <셀> 2013년 7월 3일자에 게재됐다.

살모넬라균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증식을 위해 세포 내 파고솜이라는 기관에 숨는다. 이은진 교수팀은 살모넬라균이 파고솜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며 개체 수가 늘어날 때까지 어렵게 견뎌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은진 교수는 “겨울잠을 자는 곰처럼 오랜 시간 웅크리고 지내다 개체 수가 일정량 늘어나면 순식간에 세포 밖으로 튀어 나가 병을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살모넬라균의 생존과 증식 메커니즘을 이용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한 그는 “살모넬라균이 세포 속에 있는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균의 증식과 질병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살모넬라균은 결핵균, 탄저균 등 유해성이 치명적인 병원성 세균과 성질이 비슷해 이번 연구 결과가 이들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 교수, <네이처> 논문 발표



기계공학과 정인화 교수가 왜곡 없이 넓은 각도의 촬영이 가능한 초광각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 <네이처> 2013년 5월 2일자에 논문을 게재했다. 한국·미국·중국 과학자 14명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일렉트로닉 아이 프로젝트(Electronic Eye Project)’를 통해 곤충의 눈을 모방한 렌즈 연구를 수행했다. 곤충의 눈은 수백, 수만 개의 홑눈이 모여 있는 반구 형태의 겹눈 구조로 가만히 있어도 사방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와 기능을 카메라에 재현해 160도 이상 화각으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했다. 연구팀은 실리콘 재질의 투명 고분자를 이용한 ‘늘어나는 마이크로렌즈’ 배열과 반도체 공정을 통한 ‘늘어나는 이미지 센서’를 각각 제작해 이를 결합, 반구형 모양으로 변형했다. 곤충 눈을 모방한 렌즈는 디지털 카메라뿐만 아니라 군사, 보안, 의료 등 다양한 방면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종 교수,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논문 게재



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 김효종 교수가 생물학적 제제인 ‘베돌리주맙(Vedolizumab)’의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치료 효과를 입증, 세계 최고 권위의 임상 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 8월 22일자에 논문을 게재했다. <NEJM>은 논문인용지수(I^F)가 51.6으로 <사이언스>(31), <네이처>(38.5)를 훨씬 앞선다.

베돌리주맙은 특정한 항원결정기에만 항체반응을 하는 단일클론항체의 한 종류다. 김효종 교수는 “베돌리주맙은 대장염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림프구가 염증성 장질환에 관여하는 장관점막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베돌리주맙을 많이 배양해 생물학적 제제를 만들어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물학적 제제는 백신, 항체 등 사람의 몸속에서 얻어진 물질을 약품화한 것이다. 그는 “기존의 화학 치료제가 병의 증상을 줄여줬다면 생물학적 제제는 더 나아가 병 자체를 좋아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국책과제 수주

이태후 교수팀, '산업융합기반 구축사업' 선정

'천연물 의약 소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사업단(단장 한방재료공학과 이태후 교수)'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사업단은 2013년 11월부터 5년간 75억 원을 지원받아 경희대학교 한의학·천연물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천연물 의약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을 발굴하고, 표준화 기술을 지원해 의약 산업체의 천연물 신약 제품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한방재료공학과, 한의과대학, 생명공학원 등 경희대 교수진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동아제약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사업 종료 후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5년간 후속사업 운영비가 추가 지원된다. 사업단은 지원금으로 장비를 구축하고, 의약소재 개발과 표준화, 시생산, 안정성 시험 등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단의 연구 성과는 46개 제약회사가 활용할 예정이다. 천연물 의약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먹는 음식을 소재로 해 안전성이 입증돼 있다. 따라서 화학합성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천연물 의약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의약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표준화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신약 개발을 통한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후 교수는 "경희대는 천연물 신약 개발과 임상 경험을 갖춘 교수들이 많아 제약회사에 부족한 신약 개발 기술과 표준화 인프라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숙 교수팀, '질환극복 기술개발사업' 선정

경희대학교와 경희의료원이 공동으로 추진한 '줄기세포 촉진제 substance-P의 전문의약품 개발(책임자 유전공학과 손영숙 교수)' 과제가 보건복지부 '질환극복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은 경희가 2008년 설립한 '의과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하는 학술문화를 조성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첫 결실이라는 의미가 있다. 경희는 병원, 대학, 연구소, 기업이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구중심병원



을 통해 학문 간 융합과 교육·연구·실천의 창조적 융합을 준비해왔다. 이미 확보한 핵심 원천기술이 임상연구로 이어져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치병의 새로운 치료기술과 신약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의 연계협력을 통한 연구를 위해 의과학연구원을 설립했다. 경희는 체내 물질 'substance-P'의 지식재산권을 상용화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손영숙 교수팀은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substance-P가 골수 증배엽 줄기세포의 가동화를 촉진시켜 손상 조직을 치유한다는 연구결과를 2009년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에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특허와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 가능성을 인정받고, 후속 연구를 진행해온 손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경희의료원,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와 함께 임상시험을 실시해 substance-P의 줄기세포 치료의 유효성을 확인하면서 당뇨병성 혈관 질환과 아토피 치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사업 선정으로 연구팀은 6년간 총 6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상호 교수 연구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선정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이상호 교수 연구팀의 '이식 거부반응 및 장기생존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신장이식 면역조절 기술 개발' 사업이 보건복지부 2013년도 하반기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신기술 개발 분야)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6년간 약 42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사람은 저마다 유전자가 달라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이 나타난다. 따라서 면역억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는데, 모든 환자에게 같은 양이 처방돼 부작용이 있었다. 이상호 교수 연구팀은 신장이식 환자의 고통과 입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역조절기술이 개발돼야 할 것으로 판단, 보건복지부 사업 공모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비침습적 거부반응 진단 바이오마커를 개발해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을 조기 진단·억제하는 것이 목표다. 바이오마커란 정상이나 병적인 상태를 구분하거나 치료반응을 예측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생체 표지물질을 말한다.

허의남 교수, '대학I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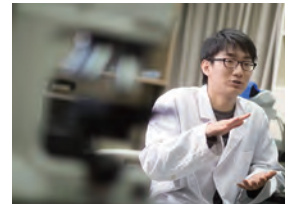
미래창조과학부 '대학IT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ITRC)'에 선정된 '실시간 모바일 클라우드 연구센터(RmCRC·Real-time Mobile Cloud Research Center, 센터장 컴퓨터공학과 허의남 교수)'가 10월 1일 개소했다. ITRC는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를 통해 IT 신기술을 개발하고,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국책사업이다. RmCRC는 실시간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연구와 지식재산권 창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경희대가 주관하며 KAIST, 서울대, SK C&C 등 5개 대학, 8개 기업이 참여한다. RmCRC는 전공지식과 기술은 물론 인문학 교육을 제공해 지(知) 테크형 창의적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허의남 교수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특허를 내고, 이를 기술이전으로 연결해 상용화에 성공하면 지식이 부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기술과 지식이 부로 이어지는 지(知) 테크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클라우드를 이용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은 오픈 소스로 개발하고, 특허된 기술은 기업에 이전하는 등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업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맞춤형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는 2013년 6억 4,000만 원, 2014년부터 3년간 8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학생 연구 성과

박광희·최원훈 학생,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2013년 10월 16일에서 18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대한화학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에서 박광희(응용화학과 10학번) 학생이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2013년 4월에는 최원훈(응용화학과 09학번) 학생이 같은 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받았다.

응용화학과에서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3,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인턴 프로그램과 교수 실험실에서 세부심화전공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험실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학원생들과 동등한 연구 과정을 통해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연구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하거나,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응용화학과 류순민 교수는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는 전문 과학자들과 대학원생이 주를 이루는 대회로, 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학부생이 우수포스터상을 받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시그마팀, 큐브위성 경연대회 최종 개발팀 선정

'2013 큐브위성 경연대회'에서 경희대 시그마(SIGMA)팀이 최종 개발팀에 선발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큐브위성 경연대회는 전국 대학의 대학(원)생으로 이뤄진 팀을 대상으로 두 차례 경연을 거쳐 최종 3개 팀을 선정해 개발비용과 발사기회를 제공하는 대회다.

시그마팀은 2015년 5월 개발 완료로 목표, 고정밀 자력계와 우주방사선 측정 장치를 큐브위성에 탑재하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시그마팀 대표 이성환(우주탐사학과 석·박사통합) 학생은 “지구 근접 우주공간에서의 자기장 분포와 변화, 방사선량을 측정함으로써 우주인의 장기 체류 시 우주방사선 피폭에 의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그마팀을 지도한 우주과학과 진호 교수는 “학생들에 의한 창의적·자발적인 융합연구의 성공적인 예”라고 평한 뒤, “시그마팀의 큐브위성은 경희대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CINEMA)를 이어가는 연구사업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우주과학 분야에서 경희대학교의 위상을 또 한 번 높게 됐다”고 강조했다. 시그마팀은 우주탐사학과 대학원생 5명, 우주과학과 학부생 5명, 전자·전파공학과 학부생 3명으로 팀을 구성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유진 학생, SCI 학술지 <보완대체요법> 논문 게재

최유진(한의학과 09학번) 학생의 논문이 SCI 국제 학술지 <보완대체요법(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2013년 6월호에 게재됐다. 최유진 학생은 ‘침 자극과 득기감(침을 맞았을 때의 느낌), 압통의 상관관계 연구’로, 침을 놓는 방법에 따라 득기감과 진통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는 한의과대학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URP)’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URP는 학생 스스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역량을 기르고 전문지식을 심화할 수 있도록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연구 지원비와 함께 교수의 1대1 지도 기회가 제공된다.



연구 부문 주요 성과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 2·3기 발사 성공



2013년 11월 21일 오후 4시 10분(한국시간) 지구 근접 우주공간 탐사용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 2기(KHUSAT-1)와 3기(KHUSAT-2)를 러시아 야스니에서 우주로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2012년 9월 14일 미국 반덴버그에서 시네마 1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이뤄냈다.

시네마(CINEMA·Cubesat for Ion, Neutral, Electron, MAgnetic field)는 경희대가 초소형 인공위성(큐브셋·CubeSat) 3기를 개발해 추진하는 우주탐사 계획이다. 초소형 인공위성을 이용한 우주탐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됐고, 초소형 인공위성 3기가 동일 목적으로 우주공간 탐사에 활용되는 것은 세계 최하다. 시네마는 태양풍에 의한 지구 영향과 지구 근접 공간의 물리적 현상을 규명하고,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중성입자 분포 측정과 우주환경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제작됐다. 크기는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34cm, 무게 3.1kg으로 초소형 위성이지만, 최첨단 관측장비를 탑재하고 실질적인 관측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총 3기의 다중 위성인 시네마는 입체적 관측으로 정밀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경희는 이를 활용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융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차세대미디어전송기술 국제표준안 채택



경희대학교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삼성전자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미디어전송기술 ‘MPEG미디어트랜스포트(MMT)’가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됐다. 2013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열린 멀티미디어부호화 국제표준화회의(ISO/IEC JTC1/SC29)에서 이 같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멀티미디어 시장을 선도할 발판이 마련됐다.

최근 미디어 시장은 인터넷 트래픽 증가 속에서 유무선 통합 인터넷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전송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MMT는 디지털방송, 전자상거래, 게임 및 영화산업 등 미래 디지털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위해 추진된 기술로, 끊김 현상 없이 고화질 영상 시청을 가능하게 해주고 방송 채널별로 대용량의 콘텐츠를 유연하게 전송한다. MMT 연구에 참여한 전자·전파공학과 서덕영 교수는 “기존에 사용된 MPEG-2는 디지털TV 기반의 기술을 인터넷 환경에서 억지로 고쳐 써 한계가 많았다”고 설명한 뒤, “MPEG-2를 대체한 MMT는 어떤 상황에서도 원활한 멀티미디어 전달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고 밝혔다.

실감형 유비쿼터스 IPTV 연구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수상

실감형 유비쿼터스 IPTV 연구센터(책임자 컴퓨터공학과 유인태 교수)가 연구 역량, 국제협력, 특허원천기술, 산학연 협력, 인력 양성 등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받아 2013년 5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09년 대학 IT연구센터(ITRC) 사업 디지털방송 분야에 선정된 IPTV 연구센터는 사업 종료를 앞두고 실시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최우수센터로 선정됐다.

그동안 IPTV 연구센터는 서비스 모델 창출과 함께 기술을 개발해 실감형 유비쿼터스 IPTV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에서도 끊김 현상 없이 고화질 영상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장치를 개발했다. 52건의 저널 논문과 35건의 SCI 논문 발표를 비롯해 특허출원 127건(국제 18건), 특허등록 54건(국제 20건), 기술이전 26건 등 탁월한 성과도 거뒀다. 연구에 참여한 석박사 연구원은 281명에 이르며, 석사 76명, 박사 7명을 배출하기도 했다. 최우수센터로 인정받은 IPTV 연구센터는 정부로부터 2년간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IPTV 연구센터는 경희대, 전남대, 광운대, 세종대, 한국항공대와 4개 공동연구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김선국·김우식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

전자·전파공학과 김선국 교수와 화학공학과 김우식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1월, 11월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은 우수한 연구 개발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발굴·포상하는 제도로, 매월 1명씩 선정된다.



김선국 교수는 차세대 투명·유연 전자회로 구현을 위해 기존 전자소자의 한계를 극복한 높은 전자이동도와 유연성을 가진 2차원 구조의 다층 이황화몰리브덴(MoS₂) 기반의 박막 트랜지스터(Thin Film Transistor, TFT)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우식 교수는 첨단 정밀화학 제품과 의약품 생산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신개념의 고효율 결정 화기와 공정을 개발한 공로로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에 선정됐다. 연구 결과는 활성의약품질 결정제조, 핵산이나 아미노산의 정제, 배터리 전극소재 제조 등 신약·식품에서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고, 현재 국내 기업으로 기술이전돼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2013 경희 Fellow 10명 임명

2013학년도 '경희 Fellow'에 10명의 교수가 임명됐다. 신규 임명된 경희 Fellow는 호텔관광대학 정남호 교수, 외국어대학 김영주 교수, 약학대학 이경태 교수, 생명과학대학 양덕춘 교수, 응용과학대학 이성열 교수, 한의과대학 김형민 교수, 의학전문대학원 김원 교수, 치의학전문대학원 권일근 교수, 공과대학 유창규, 김정태 교수다. 이경태 교수는 2009년, 김정태 교수는 2011년에 경희 Fellow에 선정된 바 있으며,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2013년에 재임명됐다. 학술문화 진흥을 위해 2008년 도입한 경희 Fellow는 과거 3년간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교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임명 기간은 2년이다.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오토피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인류사회재건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저널 <오토피아(OUGHTOPIA·The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가 2013년 12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오토피아'는 ought(당위)와 topia(장소)의 합성어로 '당위적 요청사회'를 뜻한다.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의 저서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간중심사회, 보편민주주의, 지구공동사회 등 경희대학교가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함축한 개념이다. <오토피아>는 1976년 창간됐다.

실천

경희대학교는 교육·연구·실천이 융합된 미래지향적 교육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지구사회봉사단(GSC) 설립이 대표적이다. 2013년에는 지구사회봉사단과 후마니타스칼리지가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사회공헌의 새 전범을 제시했다. 대학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해 국외 거점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구적 실천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피스 빌리지(Peace Village) 구축사업 등 교육·연구·실천을 결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선정으로 본격화된 피스 빌리지 구축사업은 2차년도 사업자 선정으로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사회봉사단(GSC) 활동

KOICA 국제개발협력사업 2차년도 사업자 선정

지구사회봉사단(Global Service Corps, GSC)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추진하는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 2차년도 사업자로 선정됐다. '캄보디아 씨엠립주 크라란군 끄로치커면 크나쓰응마을 농촌개발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지난 2012년 12월 말부터 1차년도 사업을 전개해온 경희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외 거점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지구적 실천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피스 빌리지'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대학이 발굴한 국제개발협력사업, 대학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해 현지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1차년도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사업의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경희대는 1차년도 사업에서 현지 주민의 자생적 역량을 키워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차년도 사업에 선정됐다.



지구사회봉사단과 후마니타스칼리지 연계 활동

지구사회봉사단이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사회봉사와 참여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글쓰기와 사회공헌, 현장활동과 관련된 사전교육을 거쳐 멘토링을 진행했다.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내 9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 글세상 나들이 멘토링', 3월부터 7월까지 동대문구 내 9개 초등학교 학생에게 '동대문구 꿈나래 성장 멘토링'을 실시했다. 멘토가 된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에게 체험학습과 독후활동 등을 바탕으로 한 논술과 글쓰기 교육을 실시했다. 멘토링은 학기별 12회 활동을 기본으로 매주 토요일에 3시간씩 이뤄졌으며, 체험활동을 통해 참여 학생의 흥미를 이끌어냈다.

토요 글세상 나들이 멘토링과 동대문구 꿈나래 성장 멘토링은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



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한 프로그램으로, 대학의 전문성을 살린 특화된 멘토링 모델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희 몰래산타 페스티벌



‘경희 사랑의 몰래산타 페스티벌(몰래산타)’이 2013년 12월 24일 펼쳐졌다. 2007년 시작한 몰래산타는 매년 연말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나눔 행사로 진행된다. 지난해 몰래산타에 지원한 300여 명의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노래에 맞춘 춤으로 구성된 플래시몹(Flash Mob) 공연을 통해 이웃사랑과 나눔 메시지를 전하고, 다문화·소외 가정을 방문해 직접 나눔을 실천했다.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플래시몹 공연을 선보인 몰래산타는 이후 종각역으로 이동해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고 서울광장에서 다시 한 번 플래시몹 공연을 펼쳤다. 플래시몹 공연을 마친 몰래산타는 7~8명 내외로 조를 이뤄 서울시 동대문구 인근의 다문화·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크리스마스 노래와 함께 학생들의 정성이 담긴 선물을 전달했다.

지구사회봉사단 학생 사회공헌 실천팀



지구사회봉사단은 학생들이 주체가 된 사회공헌 실천팀을 통해 학생 스스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3년 3월부터 3M(글로벌리더) 프로젝트 학생기획단, 적정기술 학생기획단, 다문화 태권도 교육 학생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3M 프로젝트는 ‘Make, Micro-change : 작지만 많은 변화를 만들자’는 의미를 가진 활동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시민교육과 더불어 아이들의 진로설정을 도와주는 활동을 한다. 2013년에는 경기도 용인 기흥초등학교와 화성 능동중학교 학생들에게 글로벌리더, 세계시민, 가치관, 다문화 등을 교육하고, 꿈트리 만들기, 아동착취 교육 및 연극 만들기, 불평등피구 활동을 했다. 적정기술은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 공동체의 정치, 문화, 환경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로, 대학의 전문 분야를 활용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적정기술 학생기획단을 기획했다. 적정기술 학생기획단은 창의설계 경진대회와 공학설계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적정기술 과학교실 교육봉사를 진행했다. 다문화 태권도 교육 학생팀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예절, 태권도 기본동작 등을 가르쳤다.

청양 ‘Happy Village’ 국내봉사단



지구사회봉사단 청양 국내봉사단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충청도 청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청양 국내봉사단과 적정기술 학생기획단, 교원, 직원 등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은 ‘행복마을(Happy Village)’을 주제로 2013년 7월 1일부터 12일간 진행됐다. 봉사단은 현지 운곡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과 미술을 가르치고, 운곡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대체에너지 관련 교재를 기증했다. 이외에도 청소, 도배, 장판, 공부방 만들기 등을 통해 소외계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학업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벽화 작업으로 마을 벽화거리를 조성하고, 농촌마을을 소개하는 블로그를 제작했다.

UNAI ASPIRE Kyung Hee

UNAI ASPIRE Kyung Hee가 2013년 한 해 동안 UNAI 논문경시대회·국제개발컨퍼런스에 참가하고, 평화포럼(Peace Forum)을 개최했다. UNAI ASPIRE는 유엔 산하 고등교육기구 UNAI (UN Academic Impact)에 소속돼 교육·연구·봉사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자발적 네트워크로, UNAI ASPIRE Kyung Hee는 다양한 학술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 8월 23일에는 UNAI 논문경시대회·국제개발컨퍼런스에 총 5팀이 참가해 논문을 제출했다.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은 '제32회 유엔 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3' 행사 둘째 날인 9월 26일 평화복지대학원에서 개막했다. '모두가 만족하는 평화는 가능한가? : 인간안보'를 주제로 열린 포럼은 27일까지 이어졌다. 학생들이 기획한 이번 포럼에는 교육·연구·봉사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전국 대학생 단체에서 참여했다.

Kyung Hee Magnolia Peace Village Initiative

지구사회봉사단은 대학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해 국외 거점지역에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지구적 실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Kyung Hee Magnolia Peace Village Initiative'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3년에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대학생과 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7월 21일부터 13일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보스톤리크 차르박면 도스틀릭에서 학생봉사단 34명, 현지 5개 대학 재학생 12명이 연합 봉사단을 구성해 도스틀릭 17번 쉬콜라(초·중·고 과정) 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과학 및 예체능 교육을 실시하고, 운동회, 학예회, 활동전시회, 수업환경개선 노력봉사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한국장학재단 멘토링 프로그램 유치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한 지식 멘토링 캠프와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 우수 멘토링 프로그램을 유치했다. 지식 멘토링 캠프는 방학을 활용해 자매 결연 지역의 중·고등학생과 함께 4일 이상 합숙하며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구사회봉사단은 2013년 1월과 7·8월 국제캠퍼스에서 제7기 동·하계 지식 멘토링 캠프를 진행했다. 캠프에는 경희대 학생 139명(동계 18명, 하계 121명)과 전북·전남·제주·충북·경기지역 중·고등학생 146명(동계 18명, 하계 128명)이 참여했다.



다문화·탈북 학생 멘토링은 다문화 및 탈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희대학교 학생 56명은 서울 지역 일대 다문화·탈북 가정 청소년과 1대1로 주1~2회 만나 학습 지도, 진로 상담, 미술관·박물관·연극·뮤지컬 관람 등 특별활동 시간을 가졌다.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추진된 우수 멘토링 프로그램 '경희대학교 꿈품 비전 멘토링'에는 멘토 35명, 서울과 경기지역 중학생 35명이 멘티로 참여했다. 학생들은 글쓰기(논술), 미술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체험, 비전 설계 프로그램, 진로 상담, 캠프 등을 진행했다.

실천 부문 주요 성과

미원 조영식 박사, 세계평화 선구자 20인 선정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Peace Palace) 건립 100주년 기념 '세계 평화운동 역사를 주도한 선구자'로 선정됐다. 헤이그시는 지난 100년간 세계평화에 공헌한 20인을 선정하고, 2013년 8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평화궁에서 '평화의 선구자 20인 기념 전시회(Peace Philanthropy - Then and Now)'를 개최했다.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을 비롯, 헨리 포드, 빌 게이츠 등 기업가와 금융인, 여성 평화운동가 코라 와이즈, 소액대출로 빈민의 자립을 지원해온 그라민은행 설립자 무함마드 유누스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인으로는 조영식 박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평화 선구자의 업적을 기리는 패널에서 주최 측은 조 박사를 아시아 최초로 평화복지대학원을 설립한 교육자이자 국제주의자라고 소개했다. 또한 1981년 유엔이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제정하도록 최초로 청원하고, 1986년 세계평화백과대사전을 편찬한 사실을 주요 업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는 학술과 실천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경희의 전통과 국제적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였다.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교육부 장관상 수상



'제2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에서 대학 부문과 대학생 동아리 부문 교육기부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학 부문에는 '지구사회봉사단(GSC)', 대학생 동아리 부문에는 국제대학 봉사동아리 'Volunteer KIC'가 선정됐다. 2009년 설립된 GSC는 대학의 교육·연구·실천을 결합한 거요적 사회공헌 기구로, 인류평화를 위한 고등교육과 사회공헌 활동 체계와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GSC는 진정한 사회공헌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을 인정받아 교육기부대상을 수상했다. Volunteer KIC는 지역사회 어린이를 위한 학생 자발적 교육기부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은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공공기관, 기업, 단체, 대학생 동아리, 대학, 개인 등에 수여되는 상이다.

Peace BAR Festival 2013



'제32회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3'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캠퍼스와 평화복지대학원에서 개최됐다. '문명과 고등교육 : 큰 배움을 찾아서'를 주제로 국제회의, 학생포럼, 기념 음악회 등 다양한 학술·문화 행사가 펼쳐졌다. 조인원 총장은 26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고등교육기관은 더 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교육, 연구, 실천·봉사를 통해 평화로운 문명의 길을 적극 찾아나서는 것이 대학의 소명이나, 현대사회, 현대교육은 경쟁적 개인과 사회가 갖춰야할 지식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말했다. 그런 추세와 함께 고등교육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술회하며, 대학은 "생존과 경쟁, 욕망을 위한 성취를 넘어, 더 나은 인간의 문명, 큰 배움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교육은 세계시민의식 함양과 평화 사회 건설을 위해 필

수"라며 "어린이들에게 관용과 상호 존경의 가치를 교육해야 한다"고 밝힌 뒤, "학교와 교사들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정하고 폭넓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서울캠퍼스에서 '문명과 고등교육 : 문명전환기 대학의 도전과 책무'를 주제로 국제회의가 진행됐고, 평화복지대학원에서는 26일과 27일 이틀간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이 개최됐다. Peace BAR Festival은 성악과, 기악과, 무용학부, 경희초등학교 중창단 등이 참여한 기념 음악회 오페라 '가면무도회(Un Ballo in Maschera)'로 마무리됐다. 기념 음악회는 평화의 전당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이어졌다.



경희대학교-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류 협력 협약

2013년 4월 12일 서울캠퍼스 본관 2층 중앙회의실에서 유네스코(UNESCO)한국위원회와 교류 협력 협약을 맺었다. 경희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류평화를 위한 고등교육과 사회공헌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희대학교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보유 중인 자원과 프로그램을 공유·활용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국제(학술)회의 공동 주관 및 진행, 교육·과학·문화 관련 프로그램 상호 교류 및 개발, 국제기구 진출·탐방 등 대학생 국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협력, 교육 및 인적자원을 활용한 경희대학교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유네스코 관련 강좌 개발 및 전문가 교류 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



유엔·국제기구 인턴십 학생 선발

2013년 유엔·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학생 9명(학부생 5명, 대학원생 4명)을 선발했다. 선발학생은 2013년 7월부터 3~6개월간 국제기구 및 NGO 단체에 파견돼 인턴십을 수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기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배움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2년까지 63명의 학생이 UN DESA, UNDP, UNAI, UN CEB, FAO, CoNGO, UNESCO 등에 파견됐고, 2명의 학생은 유엔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다.



의과학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은 전면 플라자와 경희암병원 건립을 계기로 '의과학 경희'의 재도약에 나섰다. 2013년 전면 플라자와 암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등 정부의 대형 국책과제를 수주해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기반을 마련했다. 임상연구 국제인증을 획득해 세계 수준의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입증하는 등 '의과학 경희'의 이름을 드높인 한 해였다.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2,1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대학의 공적 실천을 세계로 확장했다.

의료기관

문화복지 공간 '전면 플라자' 건립 추진

경희의료원과 경희대학교 청운관 사이에 구성원과 환자,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문화복지 공간 '전면 플라자(가칭)' 건립이 추진 중이다. 지상 2층, 지하 3층으로 계획된 건물에는 북카페,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등이 들어선다.

의료원이 전면 플라자를 신축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경희암병원 개원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하고, 공간의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둘째, 의료원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 구성원에게 휴식, 문화, 복지를 제공하고 셋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 공간을 통해 대학의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것이다. 전면 플라자의 건축비는 운영사업권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15년 치 임대료를 미리 받아 충당하고, 남은 임대료는 암병원 건립에 활용된다. 암병원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기반으로 인문학, 예술, 체육 분야와 적극 융합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진료와 치료 과정에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암 치료·연구기관이다. 건물은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신축된다. 암병원과 전면 플라자는 경희의료원 전면 좌측과 우측에 각각 들어선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의학 임상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선정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2013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 국책 과제 '한의학 임상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역대 한의학 관련 연구지원 사업 중 최대 규모로, 5년간 정부로부터 최대 50억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 선정에 따라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연구전용 임원병실과 첨단 시설을 갖춘 한의학임상시험센터 설립, 아카데미 CRO 연구지원기관(연구책임자 신경정신과 조성훈 교수) 설립, 연구자·연구책임자·코디네이터 등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연구책임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장보형 교수) 설립, 다국가 다기관 임상연구(연구책임자 사상체질과 이준희 교수)와 한의학 임상연구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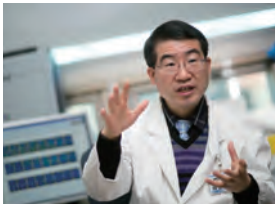
의과학 부문 주요 성과

이상훈 교수, 희귀 경추 변형 교정수술 성공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척추센터 이상훈 교수가 학계에 보고된 바 없는 희귀 경추(목뼈) 변형 교정수술에 성공했다. 23년간 다발성 신경섬유종을 앓고 있던 환자는 첫 진료 당시 3~7번 목뼈가 사라지고, 목뼈가 전방으로 165도 각도로 접혀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주저앉은 목뼈가 왼쪽 팔다리 신경을 압박해 사지가 마비되는 증세도 있었다. 이상훈 교수는 “심하게 변형된 목뼈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척추 동맥 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이전까지 그 정도로 심한 신경섬유종성 경추 변형 사례는 물론, 비슷한 수술 성공 사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경섬유종 제거, 뼈 일부를 제거해 교정하는 ‘절골술’ 시행, 신경을 누르는 목뼈 조각 제거, 엉덩이뼈 이식을 통한 목뼈 재건 등 세 차례의 수술 후 환자는 목뼈가 거의 교정되고 사지 마비 증세도 없어져, 정면을 똑바로 보며 걸을 수 있게 됐다.

장건호·류창우 교수팀, 새로운 뇌 기능 fMRI 기법 개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장건호, 류창우 교수팀이 뇌 세포 기능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기법을 개발했다. 뇌 세포 주변의 혈액 내 산소 소모량을 분석해 혈류역학에 따른 뇌 기능의 변화를 통해 뇌 세포 기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기존 fMRI와 달리 세포 내의 양성자(수소)량 변화를 측정해 뇌 기능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세포 자체 신호 측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뇌 수술과 치매 조기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신경 및 정신 질환 환자의 뇌 기능 분석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의학물리(Medical Physics)> 2013년 2월호에 게재됐으며, fMRI 촬영 영상은 표지사진으로 선정됐다.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연구 국제인증 획득

경희대학교병원이 2013년 9월 17일 임상연구 분야의 국제인증기관 AAHRPP(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피험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협회) 인증을 획득했다. AAHRPP는 2001년 미국 정부의 임상연구 안전·윤리 관련 7개 부처가 후원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연구 기관의 윤리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킬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최영규 임상의학연구소장은 “AAHRPP 인증은 경희대학교병원이 세계적 수준의 높은 기준에 따라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입증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석 교수, 대통령 한방주치의 위촉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병원 침과과 박동석 교수가 2013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 한방주치의로 위촉됐다. 2003년 한방 분야 대통령 주치의 제도가 처음 생긴 이래, 경희는 3회 연속 대통령 주치의를 배출했다. 박 교수는 관절·안면 질환의 한방 치료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외 의료봉사

경희 의료기관, 전 세계에서 봉사 활동

경희의료원은 2013년 8월 17~18일 전남 고흥군 과역면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다. 신장내과 이태원 교수 등 의료진 31명은 내과, 가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 한방과 진료와 함께 임상검사, 초음파, X-RAY 등의 검사를 실시했다. 5월에는 몽골 어른 고비 아이막(Umnugovi Aimag)을 방문해 질환을 앓고 있는 현지인 1,430명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경희의료원은 매년 몽골을 비롯해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빈민지역에서 꾸준히 무료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연변 조선족 주민 의료 봉사를 펼쳐온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은 2013년에도 중국 길림성의 연변제2인민병원을 방문해 무료 진료와 수술을 실시했다. 유명철 석좌교수와 관절정형외과, 척추 정형외과, 소화기내과, 통증전문치료클리닉 등 교수진, 간호, 행정, 롯데복지재단 관계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희망사회만들기' 의료봉사단은 8월 14일부터 5일 동안 연변제2인민병원 의료진과 한·중 연합 진료팀을 꾸려 고관절(엉덩이관절)과 척추 수술, 위내시경 검사, 통증제거기술 등 고난이도 수술과 중증환자 대상 진료를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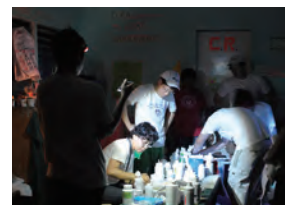
의학계열 동아리·의료기관 봉사 활동

2013년 하계방학 동안 경희대학교 의과대학·한외과대학·치과대학·간호과학대학 동아리와 경희 의료기관이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경희대 의료봉사단은 8월 2~5일 강원도 고성 청광새들넉센터를 방문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교수와 학생 22명은 내과·가정의학과·소아과 등 진료를 통해 농촌 주민의 건강을 살폈다. 의학동아리 S.U.S는 8월 9~11일 경남 하동군 진교면 술상마을회관에서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봉사 활동에는 35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한외대·간호대 연합의료봉사동아리 녹수회와 녹원회, 피닉스의 활동도 이어졌다. 녹수회는 80명으로 봉사단을 꾸려 7월 29일~8월 2일 충남 예산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 녹원회 회원 40여 명과 피닉스 회원 88명은 독거노인과 고령의 농민들에게 무료로 침과 뜸을 시술하고 증상에 맞는 한약을 처방하는 의술활동뿐 아니라 농촌 노인성 질환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봉사동아리 코드(KODA)는 8월 8일부터 4일간 평창에서 진료 봉사 활동을 벌였다. 봉사 활동에 박준봉 교수와 학생 41명, 지도 개원의 10명 등 52명이 참여했다.



경희의료원, 필리핀 의료봉사단 파견

경희의료원이 태풍 하이옌 피해 지역인 필리핀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했다. 의료봉사단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5일간 태풍 피해가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마을의 모든 시설이 파괴된 반타안 섬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의료팀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의료진 6명과 간호·행정 지원 인력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고, 필리핀 세인트루크스병원에서 파견한 의료진과 지원 인력 12명과 함께 2,1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KYUNG HEE UNIVERSITY

세계와 경희





국제화

경희는 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학위과정을 등록한 외국인 학생 비율, 영어강좌 비율 1위를 차지했다. 국제화 순위는 2위에 올랐다. 경희대를 찾는 외국인 학생 수가 점차 늘어나고, 학생들의 국적이 다양해지면서 2013년 2학기에는 영어로만 전공 및 교양 과목을 수강해 졸업할 수 있는 영어트랙을 개설해 캠퍼스 국제화를 선도했다. 한국어과정은 개설 20주년을 맞아 '문화세계의 창조' 교시를 바탕으로 문화, 세계, 창조의 핵심 가치를 담은 비전을 선포했다.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는 역대 최대인 40개국 1,218명의 지원자가 몰려 명실공히 국내 최대 한국어 말하기 대회로 자리 잡았다.

해외 파견 및 교류협력

12개국 18개 대학과 신규 교류협정 체결

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해온 경희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대학과의 교류협정을 통해 캠퍼스 국제화를 실현하고 있다. '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국제화 부문 세부지표에서 경희대학교는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전체 재학생의 6.826%),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12.875%), 학위과정을 등록한 외국인 학생 비율(9.16%), 영어강좌 비율(25%) 1위에 올랐다.



2013년에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인도 치카라대학교, 미국 하와이대학교, 캐나다 레이크헤드대학교, 과테말라 이스트모대학교 등 12개국 18개교와 신규 교류협정을 체결해 75개국 480개교(2013년 12월 기준)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과테말라 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은 2013년이 처음이다. 경희대는 매년 해외 대학의 관계자를 초청,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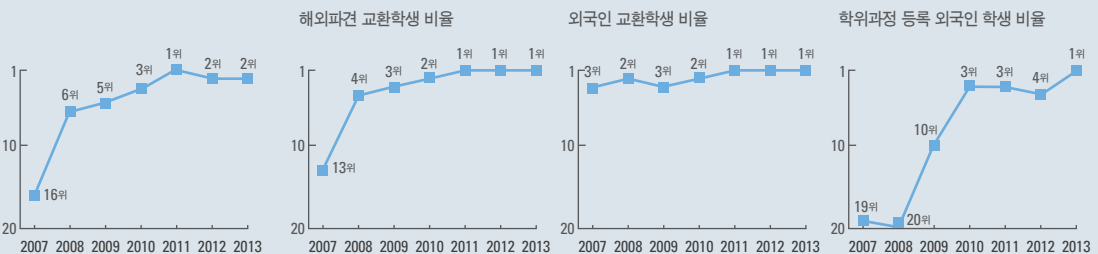
교환학생 파견 및 초청

2013년 한 해 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460명의 경희대학교 학생이 해외 대학에 파견됐다. 경희대에 초청된 교환학생은 365명이다. 가장 많은 학생이 파견된 국가는 중국(85명)이며, 미국(79명), 일본(42명)이 그 뒤를 이었다. 초청 학생 수가 많은 국가는 중국(79명), 일본(68명), 프랑스(42명) 순이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류협정을 통해 한 학기 또는 1년에 걸쳐 학생을 파견 및 초청하는 제도다. 2013년에는 아프리카, 남미 지역으로 파견 국가를 확대하고, 미국 대학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파견을 확대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초청 교환학생을 유치했다. GKS는 국립국제교육원이 매년 세계 100여 개 나라로부터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추천받아 국내 대학에서 1년간 한국어 연수를 거쳐 학부 4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제화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제화 지표



70개국 2,276명 외국인 학위과정 등록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경희대를 방문하고 있다. 2013년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은 70개국 2,276명이다. 이중 학사과정은 1,530명, 석사과정 562명, 석·박사 통합과정 60명, 박사과정 122명, 기타과정 2명이다. 중국인 학생이 1,758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일본(70명), 베트남(65명)이 그 뒤를 이었다. 2013년에는 모로코, 온두라스, 튀니지 출신 학생이 신규로 학위과정에 등록했다.

영어트랙을 통한 외국인 신·편입생 유치



한국어 언어능력이 없어 한국 유학을 선택할 수 없었던 외국인 신·편입생 유치를 위해 영어로만 전공 및 교양 과목을 수강해 졸업할 수 있는 영어트랙이 개설됐다. 신·편입학은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자나 토플, 텡스 등 영어능력 시험의 일정 성적 이상을 보유한 외국 국적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13학년도 2학기, 영어강의 비중이 높은 경영대학 경영학부, 호텔관광대학 Hospitality경영학부와 교양학점 수강을 위해 후마니타스칼리지 중핵 과목에 영어트랙이 우선 개설됐다. 향후 희망 학과의 영어트랙 운영을 늘려갈 방침이다. 2014학년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영어트랙 신·편입학으로 8개국 11명이 입학했다.

Global Collaborative 2013 Summer Program



‘인류, 문명과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Global Collaborative 2013 Summer Program’이 2013년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세계 28개국 331명(국내 115명, 해외 216명)의 학생들이 경희대를 방문해 문화, 경제, 사회, 과학 등 각 분야의 세계 석학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실무진의 강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인류와 문명’, ‘평화와 발전’, ‘글로벌 의식과 서비스’ 등 3개 트랙에서 13개 강의를 마련됐다. 학생들은 강의를 통해 인류 공존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올바른 방향을 탐색하고 지식과 의견을 공유하며 국제화 감각을 익혔다. 또 정규강의 외 태권도 수업, 서울 투어, DMZ·전주한옥마을·보령머드축제 방문 등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인 ‘Civic Service’를 통해 시민단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 파견되기도 했다.

국제교육원 다국가 학생 유치 확대

국제교육원은 순수자비 입학자, 정부 초청 장학생, 해외 자매 대학 교환학생 등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봄·여름·가을·겨울 정규과정과 봄·여름 단기과정을 비롯해 외교관 대상 한국어문화연수, 주한 대사관 한국어과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어문화 전문가양성 프로그램 등 특별과정 수시 개설을 통해 다국가 학생 유치를 확대해가고 있다. 2013년에는 아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CIS) 등 116개국 6,255명이 경희대학교 한국어과정에 참여했다. 이는 2012년 5,194명보다 1,061명이 증가한 것이다. 아시아 출신 학생이 4,744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유럽(378명), 미국(322명), 중동(242명)이 뒤를 이었다.

국제화 부문 주요 성과

한국어과정 개설 2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

‘경희대학교 한국어과정 개설 2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이 10월 1일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아람 씨네로스 주한 파나마 대사, 민현식 국립국어원장, 경희대 외국인 학생 등 7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어과정 개설 20주년을 맞아 문화, 세계, 창조의 세 핵심가치를 담은 비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20년을 새로운 도약과 성숙을 위한 시간으로 삼고, 세계적 수준의 한국어·한국학 교육 연구, 세계 한국어·한국학 연구 석학과의 연구교류 및 공동 심포지엄 확대, 교수법 혁신을 통한 새로운 한국어·문화 교육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제16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제16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2013년 5월 15일 크라운관에서 ‘나의 한국어 선생님’, ‘한국 문화 체험’을 주제로 열렸다. 역대 최대인 40개국 1,218명의 지원자가 몰린 가운데, 예심과 예선을 거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16개국 20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어 선생님을 소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인기상을 받은 프랑스 출신의 티에보 마에바 마르틴 안드리(국제교육원) 학생은 엄격한 어머니 같은 한국어 선생님과 자유분방하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남자친구를 소개한 뒤, 너무 다른 두 명의 한국어 선생님 때문에 생긴 일화를 들려줬다.



경희대학교 JAPAN DAY

국제교육원이 한국어과정 개설 20주년을 맞아 2013년 3월 14일 ‘2013 경희대학교 JAPAN DAY’를 개최했다. 벅쇼 코로 주한 일본대사 강연회를 비롯해 일본관광 안내전, 마술 공연, 일본 전통예능 ‘노가쿠(能樂)’ 워크숍, 일본국비유학·워킹홀리데이 설명회, J-POP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서울캠퍼스 곳곳에서 펼쳐졌다. 행사에는 ‘한·일 정부 공동 국비장학생 일본 공과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00여 명을 포함, 500여 명의 내·외국인 재학생이 참여했다.



유엔 세계 넬슨 만델라의 날 기념 강연

경희대학교와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이 2013년 7월 18일 평화의 전당에서 ‘유엔 세계 넬슨 만델라의 날 기념 강연’을 공동 개최했다. 행사는 인류의 평화와 공존에 헌신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더 나은 인간과 세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21개국 주한 대사관, 유엔난민기구, 비정부기구(NGO), 경희 구성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이 초청됐다.



조인원 총장은 환영사에서 “끊임없는 용기와 도전, 연결과 협력만이 차별을 넘어선 배려와 존중,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자유의 길을 열어준다”면서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이어온 경희의 길은 바로 그 미래를 찾아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YUNG HEE UNIVERSITY

창조와 도약





행정·복지·인프라

2013년에는 지속가능한 미래대학을 위한 행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됐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대학 발전을 이끌어갈 대학행정·재정발전계획(안) 수립을 추진하고,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등과 학술행정 세미나를 갖고 학술문화를 지원할 전문 행정 방안을 모색했다. 구성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 '2013 국가고객만족도(NCSI)'에서 사립대학교 부문 2위를 차지했다. 통합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한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을 위해 캠퍼스 무선랜(KHU Wi-Fi) 시스템을 구축했고, 대학과 사이버대, 의료기관의 모금체제를 통합적으로 이끌어갈 경희미래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행정

국가고객만족도(NCSI) 사립대 2위

‘2013 국가고객만족도(NCSI)’에서 사립대학교 부문 2위를 차지했다. 점수는 2012년에 비해 2점 상승한 73점으로, 1위 대학과의 점수 차가 4점으로 좁혀졌다. 경희는 지난 7년간 교육·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구성원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08년 이후 NCSI 점수가 꾸준히 상승했다. 2013년 평가에서 경희는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고객기대수준, 고객인지품질, 고객인지가치, 고객충성도 등 모든 선행 변수 점수가 전년보다 더 높아졌다. 특히 가격 대비 품질, 품질 대비 가격적정성 평가를 반영한 고객인지가치 점수가 9점 상승해 산업 평균(55점)을 크게 웃도는 72점을 기록했다. 경희의 고객인지가치 점수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등록금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성원과 소통하며 등록금 논의를 진행해온 경희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다. 반면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교육비가 2007년 725억 6,000여만 원에서 2012년 1,156억 5,400여만 원으로 1.6배 늘었고, 장학금 지급액은 같은 기간 275억 7,500여만 원에서 558억 4,200여만 원으로 2배 이상 많아졌다.

성금캠페인 통합기구 ‘경희미래위원회’ 발족

경희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등 경희학원 4개 기관의 모금 체제를 통합적으로 이끌어갈 경희미래위원회가 출범했다.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 거교적 성금캠페인을 펼친다는 계획에 따라, 기존의 성금캠페인통합사무국은 경희미래위원회 사무국으로 확대 개편됐다.

경희미래위원회는 경희학원 전체의 통합 성금캠페인을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산하기관 및 단과대학(원)별 모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부자 클럽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도 추진한다. 궁극적 목표는 사회와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평화와 공영의 지구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경희정신을 전달하는 것이다.

유관부서 협업 통해 학술행정 프로젝트 추진



경희는 학술행정 프로젝트 추진 시 유관부서 간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일례로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국제교류처에서 실시해온 해외 대학 방문을 2013년부터 체계적으로 기획·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로 미국 대학 방문단은 2013년 2월 컬럼비아대, 스탠퍼드대, 예일대, 하버드대, 상굴라리티대를 방문했다. 그 결과, 해외 우수교원을 경희대 인터내셔널 스칼라(International Scholar)와 석학·포럼 특강자로 초청하고 석학특강, 국제학술회의, 학술행정 세미나 등을 공동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인턴십, 직원 국제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교류도 논의됐다. 하버드대와는 공동 연구 및 교수 세미나 기획, 한국어·문화 프로그램 개설 등을 협의하고, 상굴라리티대와는 온라인 강의를 공동 개설·운영하기로 협의했다. 방문단이 거둔 큰 성과 중 하나는 경희-하버드대 학술행정 세미나다. 2월 16일 열린 경희-하버드대 학술행정 세미나에서 30년간 하버드대 학술행정을 담당해온 헨리 로소브스키(Henry Rosovsky) 교수는 학과의 학문적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학술 중심의 커뮤니티 형성을 제안했다.

성금캠페인 ‘글로벌 트러스트’ 추진

경희의 미래를 지원할 성금캠페인 ‘글로벌 트러스트(Global TRUST)’가 추진됐다. 글로벌 트러스트는 경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경희의 철학과 비전, 가치를 담아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경희사이버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성금캠페인이다. 통합 성금캠페인을 통해 학술적 탁월성과 지구적 실천의 결합, 그리고 이를 통한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천적 함의를 갖는 학술세계를 열어가고자 하는 경희의 미래 기반을 마련한다.

‘Infor21’ 사업·학술행정연구원 설립 추진

학술의 행정적 지원을 위한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Infor21’ 사업과 교무위원, 교직원의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담당할 ‘학술행정연구원(가칭)’ 설립 방안이 발표됐다. ‘Infor21’은 미래정보화 모델을 수립·구축해 역량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종합정보시스템이다. ‘학술행정연구원(가칭)’은 전문적인 학술행정 구현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교무위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경희의 창학정신, 전통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목표, 발전 방향, 정책기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감과 소명의식을 갖도록 하는 선도적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경희-스탠퍼드대 학술행정 세미나

경희-스탠퍼드대 학술행정 세미나가 2013년 7월 17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미래대학의 창의적 학문창달과 행정혁신 : 스탠퍼드대학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교무위원들은 스탠퍼드대 사례를 공유한 뒤, 경희 학술행정문화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복지·인프라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식당 새 단장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이 리모델링을 거쳐 2013년 3월 4일 재개장했다. 기존 식당 개념을 탈피해 세미나실, 야외 테라스 등을 신설, '커뮤니티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학생식당은 식사 공간 리모델링과 함께 세미나실 7실과 외부 테라스를 배치해 학습과 커뮤니티 활동, 세미나 및 학술행사, 소규모 모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식당 테이블에는 탈착식 스탠드를 설치해 식사시간 외에는 면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디자인대학관 로비 환경 개선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관 로비에 2012년 5월 북 카페가 신설된 데 이어, 3월 18일 베이커리 카페가 들어섰다. 구성원이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 휴식과 함께 자유롭게 공부하며 디자인을 구상할 수 있는 열린 공간, 디자인 서적이 구비된 열람실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예술·디자인대학관 로비 환경 개선 사업이 이뤄졌다. 예술·디자인대학관 로비를 활용한 편의시설 신설 계획이 수립된 후 수차례의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간 디자인이 확정됐다.



서울·국제캠퍼스 교차화상강의 시행

학생의 다양한 지적 체험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속 캠퍼스에서 원격으로 상대 캠퍼스의 수업을 실시간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교차화상강의'를 도입했다. 교차화상강의는 교수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강의실을 구축해 선진화된 교육과 글로벌 소통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양 캠퍼스에 개설된 동일 강좌의 교수는 격일 또는 격주로 캠퍼스를 교차 방문해 오프라인 수업을 실시한다. 교수가 방문하지 않는 캠퍼스는 강의실에서 화상 수업이 진행된다.



캠퍼스 무선랜(KHU Wi-Fi) 시스템 구축

통합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한 유비쿼터스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대학에서 자체 운영·관리하는 캠퍼스 무선랜(KHU Wi-Fi)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보지원처는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내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건물, 휴게 공간과 정류장 등 일부 외부 공간에 케이블을 포설하고 무선 공유기(Access Point, AP)를 설치했다. 기존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랜 서비스보다 AP 수량은 약 1.7배, AP별 동시 접속 인원수는 2~3배 늘었다.



국문 홈페이지 개편, 소통 창구 역할 활성화

국문 홈페이지(www.khu.ac.kr)가 경희의 미래상을 알리고 창조적인 소통의 공간으로 개편, 2014년 1월 6일 오픈됐다. 새 국문 홈페이지는 2014년 개교 65주년을 계기로, 대학의 핵심 가치를 더욱 강화해 '선도적 미래대학'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하는 경희의 미래를 학생, 교직원, 동문, 일반인 등 대내외 구성원과 나누는 소통 창구 역할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대학문화

경희가 대학의 근본가치, 핵심가치를 더욱 강화해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학술, 행정, 재정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경희의 미래비전에 공감한 학생과 교수, 동문 등 구성원뿐 아니라 일반인의 기부가 잇따라 기부문화가 학내외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2013년 2월 마지막 주에는 '입학주간'을 통해 서울과 국제캠퍼스가 통합된 새로운 입학문화를 처음 선보였다. 5월 18일 개교기념일에는 <경희백년 미래메시지>를 발간해 경희학원 설립자故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서거 1주기와 개교 64주년을 기렸다.

미래를 위한 정책 토론

2013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경희의 학술세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2013년 2월 21~22일 강원도 양양에서 2013학년도 1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가 개최됐다. '경희의 학술세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연찬회는 '대학다운 미래대학'의 기반인 학술세계를 한 단계 더 창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연찬회에는 조인원 총장과 부총장단, 재정사업위원장, 교무위원, 의료기관장, 부속기관장, 경희사이버대학 부총장 및 교무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희대학교는 큰 미래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며, 대학다운 미래대학은 '학술기관으로서 대학 본연의 사명인 학술적 탁월성을 성취하고, 이를 지구적 실천과 결합해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문명에 기여하는 대학'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동안 학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제도과 정책, 행정·재정·공간의 지원으로 강화해온 '학술'과 '실천'을 바탕으로 이번 연찬회에서는 학술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했다.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 '생각탑 - 영원한 혁신과 대학의 미래'를 통해 "경희대학교는 설립 이래 '학문적 탁월성'과 그 학문적 탁월성을 실천으로 전환해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는 '학문의 실천적 함의'의 전통을 만들어왔다"고 말한 뒤, "실천적 함의를 갖고 있는 학술세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경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다양성을 포용하면서도 실현적이고, 구성원이 학술적 열정을 지속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성원 스스로 경희의 역사와 전통에 자부심을 갖고,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조 총장은 "대화과 소통을 통해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경희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틀간의 연찬회는 총장과의 대화로 마무리됐다. 조인원 총장은 "지난해 후마니타스칼리지 시 민교육에 4,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고 전한 뒤, "학생들이 현장교육, 공공실천에 높은 관



심과 열정을 보였고, 관심 분야 역시 인권, 환경, 평화 등 다양했다"면서 "교육·연구와 연계한 실천의 확산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

2013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미래대학의 창조적 리더십 : 학술과 재정'



2013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가 2013년 8월 23일 광릉캠퍼스에서 '미래대학의 창조적 리더십 : 학술과 재정'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서울과 국제캠퍼스, 경희사이버대학교 교무위원들은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과 중장기 재정계획 'Finance21'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희의 학술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경희대학교 교수진은 최근 6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는 동일한 3만 2,000명 규모인데 비해, 교수진은 2007년 1,200여 명에서 2013년 현재 1,480여 명으로 증가했다. 이를 통해 과거 한 학기 4~5과목을 가르쳐야 했던 교수진의 강의 부담은 2과목 혹은 그 이하로 줄었고, 학생들의 학술적 선택 폭은 크게 늘어났다. 조인원 총장은 "더 나은 학술연구와 교육의 질을 위해 필요한 이 같은 조치는 대학에 재정 부담을 안기지만, 대학이 반드시 떠안아야 할 근본 책무"이며, '학술경희'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조인원 총장은 총평을 통해 "학술 경희"를 위해 학문 간 차이, 전공 간 차이를 인정하고, 대학 제도와 규정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뒤, "개개인의 탁월한 성취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유연함을 견지하면서, 구성원의 희망과 성취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수, 직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살리고, 개개인의 발전이 대학 발전, 공동체 발전으로 이어지는 방향에서 제도, 규정을 운영했으면 한다"면서 "이 문제는 섬세한 배려, 심도 있는 논의와 학과, 단과대, 본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풀어내자"고 밝혔다.

2013 경희의료원 노·사 합동 연찬회



'2013 경희의료원 노·사 합동 연찬회'가 6월 1일 열렸다. 조인원 총장과 의로기관장, 노조 대표 등은 '대학병원다운 대학병원 만들기,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대학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조인원 총장은 "대학과 마찬가지로 의로기관 또한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떻게 공공성을 키워가야 할지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함께 지키고 키워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 뒤 "환자 친화적 병원, 의료 사회를 지원하고 선도하는 병원, 구성원 자아실현이 가능한 병원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경희의료원의 당면 과제로는 동서협진과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암병원을 꼽았다. "양·한방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협동이 필요하다"며 동서협력 모델 활성화를 강조하고, 암병원과 관련해 "협력과 조화를 통해 의료계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구성원들은 경희의료원이 최우선적으로 환자들에게서 신뢰받는 병원이 돼야 하며 양·한방 의료 협력 지속, 연구중심병원으로의 변화, 구성원 간 활발한 소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부문화 확산

윤도준 동문, 장학금 1억 원 기부

윤도준(의학과 72학번) 동문이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했다.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1998년 의학과 발전기금 기부를 시작으로, 그가 지금까지 기부한 발전기금과 장학금 총액은 3억 5,540만 원에 달한다. 의과대학은 2008년부터 '윤도준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기부활동과 관련해 그는 “부모나 고향과 마찬가지로 모교도 운명이라 생각하며, 모교가 잘되는 것은 나의 운명을 좋게 만드는 것이라는 평소 철학에 대한 실천”이라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준비반 '청현재' 졸업생 20명 기부 약정

공인회계사 준비반 '청현재' 졸업생 20명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를 약정했다. 이들은 2013년 12월부터 10개월간 매월 10~20만 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청현재 졸업생의 기부는 20년간 청현재 지도교수를 맡았던 고(故) 이성호 교수가 2007년 10월 타계한 이후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동문들이 장학기금을 마련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58명의 동문은 이성호 교수를 추모하는 의미로 2009년 2월 1억 3,000만 원을 '이성호 기금'으로 경희대에 기부했다.



지구사회봉사단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1기 32명, 사회봉사기금 기부

지구사회봉사단(GSC)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1기 학생 32명이 2013년 1월 21일 'GSC 캄보디아 기금'을 기부했다. 2012년 1월 8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 씨엠립주 크리란군 크로치꺼면 크나 끄응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봉사단 1기 학생들은 2기 파견에 앞서, 사회봉사기금 100만 원을 조성했다. 모금활동에는 박한규 GSC 사무총장이 학생들의 뜻에 동참해 100만 원을 기부, 총 200만 원의 기금이 마련됐다. 캄보디아 봉사단 1기 학생들은 2012년 봉사활동을 다녀온 후, 정기 모임을 갖고 당시 인연을 맺은 현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모았다.



경희대-유엔난민기구 필리핀 태풍 피해 긴급구호 지원

2013년 12월 27일 서울캠퍼스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필리핀 태풍 피해 긴급구호 성금을 유엔난민기구(UNHCR)에 전달했다. 경희대는 이날 UNHCR과 난민 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모금 캠페인 진행, 대학생 나눔 참여 기회 제공, 서울·국제캠퍼스에 사회공헌활동 장소 제공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경희의료원·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임금 인상분 50% 발전기금 기부

경희의료원이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에서 임금 인상분의 50%를 병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아름다운 합의'를 이뤄냈다. 경희의료원 노동조합은 '병원이 발전해야 구성원도 웃을 수 있다'는 공동체 정신으로 병원 측의 2% 임금 인상안에 1%(약 11억 원)를 기부하겠다고 화답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노사협의회도 임금을 2% 인상하고, 1%(약 6억 원)를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대학문화 부문 주요 성과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1주기 추모 원탁회의 개최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 1주기 추모 원탁회의가 2013년 2월 18일 서울캠퍼스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학술과 평화 - 경희는 무엇을 기릴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원탁회의는 기초발제, 집담회,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영식 박사의 철학과 사상을 되새기고 현재화-미래화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에서 "조영식 박사의 철학은 경희대학교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와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에 축약돼 있다"면서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만들어온 경희는 최근, 지구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학의 소명을 유엔과 함께 고민했고, 인간 중심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더 나은 지구사회와 문명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세상의 모습을 부단히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대의 축전, 2013학년도 입학식



2013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한 '입학주간'을 통해 새로운 입학문화를 선보였다. 후마의 날, 경희의 날, 공동입학식 순으로 진행된 입학식에서 신입생들이 경희의 역사와 철학을 이해하고, 지식인으로서 갖춰야 할 학문 탐구의 방법 및 자세, 그리고 대학생활 및 미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입학식에서는 재학생과 교직원, 교무위원들의 환영 속에 모든 신입생이 단과대학별로 입학식장에 들어서는 '입학식 퍼레이드'가 처음으로 시도됐다.

조인원 총장은 환영사 '내 안의 영웅'을 통해 "번영과 풍요의 뒤안길에 남겨진 빈곤과 소외, 편견과 갈등, 오만과 생태파괴는 대학인, 사회인, 세계인이 함께 풀어가야 할 도전적 과제"라고 밝힌 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선 "인간에 내재된 무한한 열림과 초극의 가능성을 찾아나서는 영웅적 개입(Heroic Engagement)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개입은 "치열한 자신과의 맞섬을 통해 내 안의 역량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 재능의 실천적 미래를 개인과 사회, 문명 창조를 위해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초청 고교 교장 간담회 개최



대학과 고등학교의 연계·협력을 통해 교육의 지속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모델을 창출해 온 경희가 고교 교장과의 소통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모색했다. 2013년 4월 30일과 5월 21일 서울과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경희대학교 초청 고교 교장 간담회'에서 조인원 총장은 고교 교장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 총장은 "21세기 고등교육은 '더 나은 개인과 사회, 인류의 미래를 연결하는 안목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경희의 재학생들은 "사회 진출을 위한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과 함께 자신을 성찰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민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이 교육의 핵심가치는 "학생 개개인의 학술적 성취가 어떻게 타인과 사회, 세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매그놀리아 2013, 목련회의-목련예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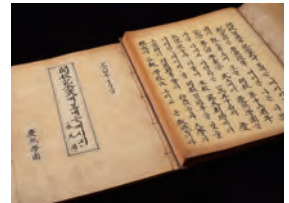
2013년 한 해 동안 경희가 이뤄낸 성장과 도약을 되돌아보며 대학다운 대학의 미래를 향한 열정과 의지를 공유한 '매그놀리아(Magnolia) 2013'이 12월 20일 경희 구성원, 동문, 일반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매그놀리아 2013은 1부 목련회의, 2부 목련음악회로 진행됐다. 목련회의에서는 목련상과 특별공로상 시상이 진행됐다. 목련상은 실천 부문에서 김종섭 국제교육원장이 수상했다. 목련상은 경희가 추구하는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 구현과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에 공헌한 구성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동문에게 수여되는 특별공로상의 영예는 이건수(정치외교학과 60학번) 동문에게 돌아갔다. 계속해서 후마니타스칼리지를 통한 배움을 소개한 학생 발표와 성금캠페인 '글로벌 트러스트(Global TRUST)' 소개가 이어졌다.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에서 경희는 그간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목표로, 대학의 기본 역량 강화와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 학술의 탁월성에 주력하고, 그 위에 더 나은 문명의 미래를 향한 열정을 키워온 경희의 근본가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밝힌 뒤, "2014년 개교 65주년을 맞아 '대학다운 미래대학', '선도적 미래대학'의 새 지평을 함께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희백년 미래메시지〉 발간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 조영식 박사 서거 1주기와 개교 64주년을 맞아 〈경희백년 미래메시지〉를 발간했다. 조영식 박사가 1964년 개교 15주년에 발표한 '개교 100주년에 보내는 메시지'와 앙케이트 원문을 소개하고 해설을 붙인 책이다. 미래메시지는 '경이로운 경희', '세계적인 대학'이라는 2개 핵심어로 요약된다. '경이로운 경희'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평가다. '세계적인 대학'은 경희의 미래비전과 목표다. 조영식 박사는 미래메시지에서 "그것(미래비전)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동안 반드시 우리의 뜻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며, 적어도 우리들의 후배인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할 후배들이 경희의 비전과 목표를 반드시 이뤄주기를 당부했다.



제3회 홍릉포럼, '홍릉, 도시문명의 미래' 주제로 개최

제3회 홍릉포럼이 2013년 4월 25일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홍릉, 도시문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한계에 이른 개발 위주의 재개발사업에 관해 성찰하고 홍릉 일대의 미래 건설 방안을 모색했다. 조인원 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발표되는 두 가지 주제, 홍릉을 세계적인 교육연구단지로 조성하는 구상안과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를 지향하는 도시문명의 미래 건설은 경희대학교가 오랜 기간 상상하고 실천으로 옮기기를 희망한 주제"라고 말한 뒤, "홍릉포럼이 대학과 연구기관, 지역사회, 시민이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한국사회와 인류사회, 그리고 문명의 미래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프로젝트가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홍릉포럼은 홍릉 인근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미래지향적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2년 7월 출범시킨 모임이다.



전진하는 경희

핸드볼, 체조, 양궁, 배드민턴, 농구 등 스포츠 전 종목에서 우수한 성취를 거두며 '스포츠 경희'의 저력을 보여줬다. 핸드볼부는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거뒀고, 양궁부는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남녀 단체전에서 2년 연속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신춘문예, 한국관광홍보 UCC 및 아이디어 공모전, 정부학자금지원수기공모전, 방과후 교육기부 활동 공모 등 각종 대회에서 학생들의 수상 소식도 전해졌다. 위키피디아의 동해 표기 오류를 발견해 이를 바로 잡게 하고, '과외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교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경희의 이름을 드높인 한 해이기도 했다.

체육부 연이은 선전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금 7, 은 4, 동 9

10월 18~24일 인천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체육부 학생들이 금메달 7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의 성과를 거뒀다. 태권도부는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 양궁부는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전훈영(스포츠지도학과 13학번) 학생은 여자대학부 개인전과 30m에서 금메달, 6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어 가장 많은 메달을 따냈다. 체조부는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마루운동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황수빈(스포츠지도학과 12학번) 학생은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배드민턴 개인복식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했다. 농구부는 준결승전에서 프로선수들로 구성된 국군체육부대(상무)에 패하며 동메달을 차지했다.



제30회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남녀 단체 2년 연속 동반 우승

양궁부가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대학부 단체전에서 2년 연속 남녀 동반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여자대학부 단체전은 3연패를 달성해 최강 전력을 자랑했다. 남자대학부는 단체전 예선에서 4,024점을 기록해 대회신기록을 달성했다. 대회는 2013년 6월 22~26일 울산 문수국 제양궁장에서 열렸다. 양궁부는 2013년 7월 18~23일 강원도 원주양궁장에서 열린 제31회 대통령기 전국남여양궁대회 대학부 단체전에서도 6년 만에 남녀 동반우승을 차지했다.



제68회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 남자대학부 우승

핸드볼부가 제68회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 남자대학부 우승을 차지했다. 2013년 4월 28일 전북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전년도 우승팀 한국체육대를 만나 27-25로 승리했다. 경희대가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8년만이다. 오상환(스포츠지도학과 12학번) 학생은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학생 수상 소식

김재현·박성준 학생, 신춘문예 시·평론부문 당선



2013년 신춘문예에서 김재현, 박성준(이상 국어국문학과 07학번) 학생이 각각 시와 평론 부문에 당선됐다. 시 〈손톱 깎는 날〉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김재현 학생은 “경희대에서 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방법론보다 먼저 시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평론 〈모글리 신드롬 - ‘가능성’이라 불리는 아이들〉로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된 박성준 학생은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평론 방법을 체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하늘 학생, 한국관광홍보 UCC 및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



양하늘(포스트모던음악학과 09학번) 학생이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한국관광홍보 UCC 및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을 차지했다. 그는 ‘90일 동안 세계일주를 하며 대금과 소금을 연주해 한국을 알리겠다’는 홍보계획과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글, 전통민요, 차 문화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람들을 모아 유명 관광지에서 강강술래, 아리랑 합창 퍼포먼스를 펼치겠다는 등의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서지혜 학생, 정부학자금지원수기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서지혜(생체의공학과 10학번) 학생이 제5회 정부학자금지원수기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교과부 장관상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장학금 300만 원을 받았다. 서지혜 학생이 공모한 글의 제목은 ‘봄바람에 꽃망울을 맺은 나의 꿈’이다. 그는 “캠퍼스의 꽃들을 보면서 나 또한 꽃처럼 아름다운 꿈을 피워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서지혜 학생은 1학년 2학기부터 정부학자금,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 성적우수장학금 등을 받아왔다.

김은영 학생,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김은영(환경조경디자인학과 10학번) 학생이 2013년 12월 18일 ‘2013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다. 김은영 학생은 유럽에 비해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화훼장식 분야의 국가대표로 발탁돼 2013년 7월 독일국제기능올림픽 화훼장식 분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미래인재 발굴·격려와 인재 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수상자들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메달, 장학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교육부 방과후 교육기부 활동 공모 최우수팀 선정

국제학과 봉사 동아리 ‘Volunteer KIC’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한 방과후 교육기부 활동 ‘알라달락 행복한 교실’ 프로그램 공모에서 최우수팀에 선정됐다. 제출한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주변에 벽화를 그리는 ‘밝은 등갯길 만들기’다. 최우수팀 선정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서천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벽화그리기 수업을 진행했다.

교외 활동 성과

이지나 학생, 한의사 국가시험 수석 합격

이지나(한의학과 07학번) 학생이 제68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 2013년 1월 18일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916명이 응시해 869명이 합격했다. 재학 4년 내내 학년 수석을 차지한 이지나 학생은 2013년 2월 졸업 후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인턴과정을 시작했다. 그는 “입학 초에는 한의학의 논리와 사상 등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점차 한의학의 신비와 효능을 알게 됐다”며 “한의학의 우수성을 직접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무용학부 황찬용 학생, KDF 장학생으로 세계무대 진출

황찬용(무용학과 12학번) 학생이 한 달 동안 불가리아를 방문해 ‘데리다 댄스 컴퍼니 앤드 센터(Derida Dance Company&Center)’가 제공하는 워크숍에 참가하고 현지 공연에도 출연했다. 황찬용 학생은 2012 Korea Dance Festival(KDF) 우수학생으로 선정돼 세계 무대 진출의 길을 열었다. KDF는 한국 현대무용진흥회가 1990년부터 미국무용페스티벌(American Dance Festival, ADF) 본부와 협력, 2년마다 개최하는 국제적 현대무용 페스티벌이다.



김민이 학생, 동해 표기 위키피디아 오류 수정

김민이(지리학과 11학번) 학생이 다국적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동해 표기 오류를 발견해 이를 바로잡게 했다. 김민이 학생은 2013년 6월 위키피디아에 실린 한·일 간 동해 표기 논쟁에 관한 글에서 ‘국제수로기구는 2012년 동해 표기 사용을 거부하고 ‘일본해’를 이 바다의 유일한 이름으로 정했다’는 내용을 발견했다. 그러나 2012년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수로기구 총회는 동해와 일본해의 표기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2017년 총회로 논의를 미뤘다. 김민이 학생의 수정 요청 메일을 받은 위키피디아는 ‘국제수로기구가 동해 표기 사용을 거부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표기 논의가 미뤄진 사실을 추가했다.



경희대 학생들, ‘과외협동조합’ 설립

경희대 학생들이 대학생 과외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저렴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과외를 원하는 초·중·고등학생 학부모들과 안정적인 아르바이트로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덜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다. 조합 설립을 주도한 이건욱(언론정보학과 07학번) 학생은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육 수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조원들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시민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그 일환인 협동조합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를 도왔다”고 말했다. 이건욱 학생을 지도한 우대식 교수는 “과외협동조합이라는 발상은 과도한 경쟁이 만연한 한국 교육 현실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의 고민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학생들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실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자와 목련

총장 365일

기간: 2013.1.1(화)~2013.12.31(화)

공식 일정 (총 665회)

공식 회의: 328회

합동교무위원회, 발전위원회, 각 위원회 회의
총장 주재 부총장 회의, 실무부서장 회의, 의료기관장 회의
단과대학 간담회
구성원 대표 간담회

면담: 205회

부총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원장, 실무 부서장 등 교내 구성원 면담

행사: 65회

교내·외 공식 행사
공식 오·만찬
총동문회 행사



경희의료원 노·사 합동 연찬회



아레테 북토크



시민교육 수강생 격려 오찬

교외 인사 접견 : 65회

정·관·재·학계 인사

국내·외 자매교 인사

총동문회 인사

해외 교류협력기관 인사 및 외교 사절

각종 기부 협약 체결 관련 인사

언론 인터뷰 : 2회

〈중앙일보〉

〈대학주보〉



학생회 신임집행부 간담회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 발사 브리핑



〈대학주보〉 인터뷰

총장 연설문

1. 2012학년도 학위수여식

졸업식사 | 2013년 2월 20일

치유와 공명, 배움의 길

반갑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졸업생 대부분은 2009년에 입학하셨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은 입학년도가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2009년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2009년엔 여러분의 모교 경희에도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희의 오랜 전통, “학문과 평화”와 함께 세계시민포럼을 개최했습니다.

UN과 UNESCO, 세계시민 협의체가 함께했습니다.

소외와 인권, 갈등과 평화 같은 보편의제를 다뤘습니다.

‘더 나은 인간과 문명’의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그간의 대학생활, 어떠셨는지요?

자신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소중한 꿈을 키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성취를 축하하면서, 오늘은 여러분이 오늘 이후 마주할 캠퍼스 너머 세계를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치유와 결핍 – 시대의 아픔으로...

우리나라 국민 30명 중 1명. 국민 10명 중 1명.

어떤 통계인지 궁금하시지요?

최근 우리 사회에 열풍을 일으킨 도서 구입자와 영화 관람자 수입이다.

지난 2010년 8월, 평화의 전당에선 특별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강의했습니다.

그 해 우리 사회에 ‘정의 신드롬’을 일으킨 샌델 교수의 책은 출간된 지 1년 남짓한 기간에 130만 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의’와 같은 딱딱한 인문·사회과학 주제가 이처럼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리라곤 예상치 못했습니다.

한국인의 반응, 왜 이처럼 뜨거웠을까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불안정한 구조와 도덕의 붕괴.’

‘근원적 성찰과 해법 없는 정치권.’

사회적, 정치적 혼란에서 번민하는 시민들이 ‘정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130만 독자, 그 밖의 수백만 간접 독자와 화자가 치열한 자본주의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란 물음에 큰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의 열풍’이 채 식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사회 현상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른바 ‘레미제라블 현상’입니다.

19세기 초 프랑스의 암울했던 사회 상황과 혁명의 전조를 그린 레미제라블이 5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50여 년 전 출간된 빅토르 위고의 원작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에 영화, 뮤지컬, 연극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영화와 뮤지컬로 소개됐습니다.

민중의 고통과 수난, 인간적 삶의 갈망을 그린 레미제라블이 최근 한국인, 한국 사회와 특별한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문명사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는 산업화, 민주화를 거쳤습니다.

이 시대를 거치며,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시대의 고통, 사회의 아픔이 있습니다.

‘풍요 속 결핍과 모순’의 사회 심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치열하고 각박한 경쟁사회와 함께 열린 100만 실업시대.’

‘폭증하는 자살율과 이유 없는 폭력의 연쇄 고리.’

‘대안 부재의 정치와 사회적 담론의 빈곤.’

성공과 성장 신화에 내몰린 개인의 삶이 시대의 아픔과 함께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천착해야 할 인간의 숙명이 각박한 경쟁사회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두 열림

여러분은 지난 4년 배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전문화 교육을 접했습니다.
전문지식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의 성취와 사회의 성장 신화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지식이 성취와 성장에만 초점을 둔다면, 그 지식은 전문적이되,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지식과 배움의 이런 한계는 우리 지성사회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더 나은 인간을 추구하지 않는 배움.
사회 안정과 성숙을 포괄하지 않는 배움.
이런 배움은 제한적이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불안과 함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중후, 위로와 치유 열풍은 바로 이 불완전한 배움의 결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엔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대학에 가야한다.'
'대학은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곳이다.'
'전문지식은 개인이 원하고, 경제가 요구하는 수요의 연장선상에 서야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적 강박의 틀 속에서 지식과 배움은 그 본연의 모습을 잃게 됩니다.
결과는 상처와 치유의 반복입니다.
그 중후의 확대 재생산입니다.

상처와 치유는 내면의 성찰을 요구합니다.
타자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사회와 공동체는 치유에 필요한 이해와 공명, 연민^{compassion}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배움의 또 다른 길, 또 다른 열림입니다.
인간에 대한 근원적 성찰.
공동체가 갖춰야 할 규범과 덕목.

이 둘을 연결할 혁신 의지와 사회적 실천.
이를 위해 더 큰 배움과 학습의 장이 필요합니다.

배움의 길, 경희의 길

서구 대학 총장들은 전통적으로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에게 철학과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

큰 배움의 길을 위해 지식과 학문의 참된 의미를 학생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세속화, 현대화가 심화되면서, 이런 교육의 기회는 그 기반이 취약해졌습니다.

특히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추세가 깊어지면서, 배움은 개인적 성취와 물질 성장 논리로 압축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하버드대학교 파우스트 총장은 교육과 배움의 위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고등교육의 도구적 기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의 전부가 아닙니다.’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더 안 좋아 보입니다.

압축 성장에 따른 사회 혼란이 점증하면서 ‘큰 배움’의 기회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회에서 당장 활용할 지식을 전수해라.’

‘취업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라.’

‘대학 경쟁력을 키워라.’

사회에 회자되는 이 말의 문화적 근저에 우리 대학사회의 위기가 있습니다.

개인적 성취와 물질 성장은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성취와 성장 동력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삶의 안정과 지속을 위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상처와 고통, 불안과 심려의 증후는 치유돼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배움의 또 다른 길, 공명과 연민의 학습이 기여할 공간이 있습니다.

대학은 말 그대로 大學, 큰 학문의 장입니다.

큰 학문, 큰 배움은 전공 지식과 인간의 길, 자연의 원리를 함께 성찰하는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영원한 새로움을 창조하며, 혁신과 개선을 거듭하는 실천의 장입니다.

그 도전의 과정, 실천의 장이 대학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학문을 나섭니다.

대학문을 나선다는 것은 배움의 종결이 아닙니다.

더 큰 자신, 더 큰 사회의 미래를 위해 또 다른 배움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졸업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때그때 처한 문제 풀이로만 삶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삶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장과 성취가 가능한 안정적 사회와 문화, 문명의 길은 이 기반이 유지될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정의'에 대한 열풍.

21세기 우리 사회에 다시 탄생한 19세기 프랑스의 변혁 의식.

이에 대한 열광의 논거는 바로 큰 배움과 성찰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21세기 '인간화 프로젝트'의 의미를 되새긴 정치철학자 로베르토 웅거는 현대사회 모순 해결의 첫 걸음으로 "주체의 각성"을 강조합니다.

인간 내면의 무한한 초월적 역량이 억압적 사회에 끊임없이 저항할 때, 더 나은 세상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근간으로 "배움의 혁명"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생의 학습 현장에서 강조돼야 할 "인간과 우주의 원리."

"영원한 새로움과 창조적 보편에로의 도전."

유한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해석하고 창조하는 것이 배움의 원천일 것입니다.

더 나은 우리들의 미래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입학한 2009년은 경희가 더 넓은 세계와 조우한 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시민포럼이 열렸습니다.

이와 함께 후마니타스칼리지가 기획됐습니다.
두 가지 구상이 기획과정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는 경희가 설립 이래 구현해온 배움의 공적 실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인간과 문명의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상은 기초와 전공, 실천의 창의적 결합을 통해 자기 발견과 사회적 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의 지극적 함축을 창조하는 '배움의 가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희는 더 나은 개인과 사회, 문명의 미래를 열고자 했습니다.

치유와 공명, 배움의 길.
산업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뒀안길을 돌아보는 데 중요한 소재입니다.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의 꿈과 희망을 사회발전, 문명진보에 동참하게 하는 소중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4년의 배움, 100세 시대를 향해 거듭될 배움의 기회가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경희는 그 꿈과 희망을 이어갈 것입니다.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배움의 미래, 더 나은 인간의 길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할 큰 배움의 길.
개인과 인류의 희망을 기리는 '경희의 교육혁신'이 함께 하겠습니다.

내 안의 영웅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경희의 첫 만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희와의 첫 대면,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요.
설레시지요?
설레고, 기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 평화의 전당에서 자랑스러운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서울, 국제 공동 입학식을 갖게 됐습니다.
3일간의 입학 행사가 여러분과 경희가 처음 만나는 설레고, 즐거운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꿈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회를 위해 '대학인이 된다는 것'
그 의미를 함께 되새겼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경희를 선택할 때 고민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어느 대학을 선택할지, 어느 대학이 내게 맞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지난 연말 우리 대학 수시 모집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그때 지원하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수시가 끝난 후 저는 특별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면접에서 "왜 경희를 선택했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지원자 약 90%가 후마니타스칼리지를 그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면접을 담당했던 그 교수님은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출범한 지 불과 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수험생들이 후마니타스칼리지에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새롭습니다만, 후마니타스칼리지를 준비할 때, 두 가지 구상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는 학문의 궁극적 목표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대학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전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지만, 지식의 근본 가치는 인간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학문세계의 실천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가 함께하는 인간 세계를 위해 학문의 실천적 의미를 창조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근간입니다.

사실 이 구상은 평범한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대학의 역사와 함께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학 현실은 근래 들어 많이 변했습니다.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 추세와 함께, 대학은 어느덧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은 직장과 개인적 성취.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

흔히 말하는 “성장 신화”의 요구와 함께 대학의 전통 가치는 그 기반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사회의 “개발 연대”가 말해주듯이, 성장과 번영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가치전도입니다.

삶의 수단이 돼야 할 성장과 부가 목적 그 자체가 됐습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학문, 함께 나눠야 할 인간애에 관한 지식은 뒷전으로 물러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립자 빌 게이츠 회장을 잘 아실 겁니다.

세계적인 부호지요?

그 분은 대학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대학 3학년 시절 중퇴했다고 합니다.

중퇴 후 수십 년이 지난 2007년, 하버드대학교는 게이츠 회장을 초청했습니다.

연설에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대학을 떠날 땐 미국사회 수백만 젊은이들이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개발도상국 수백만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긴 후, 게이츠 회장은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하버드대학을 이끌고 계신 교수님, 학장님,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교수 정년을 심사할 때, 커리큘럼을 만들 때, 학생들의 졸업 요건을 결정할 때..., 이렇게 물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 가난, 기아, 질병, 불평등과 같은 인류의 난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마음을 헌정하고 있나요?'

뜻밖의 물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 게이츠 회장을 특별하게 기억하는 까닭은 바로 이 물음에 담긴 그의 마음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하버드대학교는 2010년을 "공공봉사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해 졸업식사에서 드루 파우스트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 설립자들은 교육의 궤적이 자기발전에서 공공행동으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졸업장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졸업장과 함께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입학한 경희의 전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학문의 시작과 끝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철학과 함께 경희는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인간을 위한 학문.

이 가치를 지향하며 더 나은 인간과 세계의 미래를 꿈꿔왔습니다.

지난 1974년, 경희의 설립자께서 세계인류학자대회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인간적인 차원의 삶으로 이끄는 가장... 유용한 방법입니다.'

'교육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인간 창조를 가르칩니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전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 봉사하는 마음도 개척합니다.'

미래는 역사와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 이뤄집니다.

우리가 쌓아온 과거와의 '회귀적 대화'를 통해 무한한 상상력이 발현되는 것이 미래일 것입니다.

경희의 미래도 이런 문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학술과 평화의 전통과 대화하며, 함께 일궈갈 상상의 세계.'
'더 나은 인간과 세계의 내일을 열어갈 우리들의 실천 세계.'
역사와의 대화, 상상과 실천의 세계가 곧 경희의 미래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경희의 미래를 펼쳐갈 주역입니다.
더 나은 자신의 미래, 세계의 미래를 그려갈 학술과 실천의 여정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 설레는 일일 것입니다.
젊은 꿈을 안고, 도전과 창조를 위한 길을 나서는 일.
이보다 더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문 꿈을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선 설렘 못지않은 용기도 필요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 또 때에 따라선 남과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 정신이 필요합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사회는 과도기에 처해있습니다.
번영과 풍요의 뒤편길에 남겨진 빈곤과 소외, 갈등과 혼란.
이 모두 치열한 숙고와 냉철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새로운 실천을 필요로 합니다.
눈을 들어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 더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한 모금의 비극.
하루 1달러를 마련하지 못해 기아와 병마에 시달리는 삶의 절규.
생각 차이, 이념 차이가 빚어내는 온갖 갈등과 폭력.
생태파괴와 기후변화.
우리 대학인, 사회인, 세계인이 함께 풀어가야 할 도전적 과제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서로 밀접히 연결돼 있습니다.
세계의 문제가 곧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세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지혜, 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이끌어내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영웅적 개입”^{heroic engagement}이라 부릅니다.

영웅의 사전적 의미는 지혜와 용기, 재능을 가진 인물입니다.
우리를 위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인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정의라고 봅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남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도, 영웅도 인간입니다.
'인간에 내재된 무한한 열림과 초극의 가능성.'
'이를 통해 더 나은 자신과 세상을 열어가는 것.'
이런 가능성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바로 영웅일 것입니다.

인간은 제한적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 제도와 문화에 사로잡힌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로잡힘'을 넘어서면 종전에 가졌던 고정관념이 다가 아니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인간은 매우 미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눈앞의 이익에 무너지고, 이익 추구를 위해 위선과 편견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순간'엔 '나 너머 진리'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세상의 굶주림과 소외에 분노합니다.
불의와 불평등에 화를 냅니다.
제한적이고, 나약한 나를 넘어서실 때, 우리는 또 다른 존재의 지평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벗어남과 넘어서, 또 다른 나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우리는 영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근원적 의미는 바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지식과 지혜, 재능의 실천적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큰 학문입니다.
큰 배움의 길일 것입니다.

인사말을 마감하면서, 경희학원 설립자의 마지막 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를 축약하고자 합니다.

‘끝없는 저 하늘
하늘 뒤에 하늘이
그 뒤에 또 아득한 하늘이 이어진다...
그 속에 있는 나는 누구이고
또 무엇인가?
... 내가 누구이길래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원대한 나’로의 여정에 큰 응원을 보냅니다.

경희의 1천 4백여 교수님, 5백여 교직원 선생님, 2만 7천여 선배들, 그리고 23만여 동문이 큰 박수를 보냅니다.

3. ECOSOC Civil Society Forum

개회사 | 2013년 5월 16일

초탈적 전환, 지구고등교육을 향한 우리의 꿈

존경하는 Osorio ECOSOC(Economic and Social Council) 의장님,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ECOSOC Civil Society Forum에 참여하게 돼 영광입니다.

2년 전 이곳 UN 본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UNA(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와 경희대학교가 공동 개최한 UN 제정 세계평화의 날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새롭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따뜻한 환영의 말씀과 함께,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세계 시민과 대학, 특히 젊은 학생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30여 년 전 평화의 날을 제안했던 경희대를 대신해 연설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UN과 세계가 염원해온 평화로운 인류사회를 위해 대학이 상아탑을 넘어 '학술의 공적 실천'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주 전,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에 관한 공사(公私) 이익의 결합, 한국 사례'에 관한 개회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가급적 주제에 충실하되, 한국 사례를 포괄적으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경희대학교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UN이 '포스트 2015 시대'를 맞아 사(私) 부문, 특히 대학과 어떤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벽두, UN은 '새천년개발목표'를 선포했습니다.

이 담대한 목표와 함께 UN은 지구협력을 도모했습니다.

기아와 질병, 인권과 평화,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지구 의제를 다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경이로운 성취가 있었습니다.

극단적 빈곤과 질병 퇴치, 어린이를 위한 초등 교육 확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환경문제 개선과 같은 소중한 성과를 매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취에도 불구하고, 풀어가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MDGs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선 유엔헌장이 지향하는 'UN 세계시민'("We the people of the United Nations")의 폭넓은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래역사의 주역인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MDGs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 자신이 대학 현장에 있다 보니, 이 문제가 더욱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간 UN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의 지구적 차원의 문제의식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2015년 MDGs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그 너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대학인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는 '생존 현실'을 헤쳐 가는 Homo Habilis, Homo Sapience의 후예입니다.
장구한 진화 과정을 거치며, 인류는 삶을 헤쳐 갈 도구적 기술과 지혜를 쌓아왔습니다.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체제는 인류의 이 같은 속성을 전례 없이 강화했습니다.
그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며,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교감과 연민을 넓히는 일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 국가의 성장, 혹은 경제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안정된 실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선, 인간적 가치 강화와 보존을 위한 공동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인류가 오랜 생명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인식과 함께, 인간의 또 다른 기질, 희망하는 인류 "Homo
Esperans"의 공동체적 노력을 이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세기 대학은 전문 지식의 기반을 강화해 왔습니다.
경쟁과 성장의 시대적 필요와 함께 일어난 이 현상은 대학의 고유 기능을 약화시켰습니다.
날로 세분화되는 전공 교육, 높아지는 전공 간 벽과 경계.
이 추세가 이어지면서, 고등교육기관의 학문 풍토는 점차 파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지구적 현안과 인도적 과제에 관한 교육은 부차적인 과제로 취급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위한 융합 지식의 확산. 더 나은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한 학문의 지구적 실천.
이 경향과 함께, 전공 간, 학문과 실천 간 차이와 경계를 넘어, 인류의 희망을 이어가는 노력이 고등교육 현장 곳곳에서 일
어나고 있습니다.

UN은 2010년 UNAИ를 설립했습니다.
교육의 힘, 지성의 힘을 통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새 세계를 열어가자는 것이 그 설립취지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30여 학술기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UN의 선도적 노력에 동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 나라와 문명의 지속성을 담보하며, 더 나은 희망의 인류사회, 공감의 미래사회를 여는 일에 대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도 이와 같은 변화 추세에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통합지식,” “학문과 실천의 창의적 결합”을 지향하며, 지구시민의식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1세기 고등교육기관의 새로운 역할을 조망한 1999년 ‘서울NGO세계대회’와 2009년 ‘세계시민포럼’ 개최.

2011년 설립한 교양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지구사회봉사단.

이와 함께 대학과 시민이 함께 풀어야 할 빈곤과 소외, 기아와 질병,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구현과 같은 인도적, 지구적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수만 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과 구성원 공공봉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은 ‘개인과 사회, 국가와 인류의 상호연결’^{interconnectivity}을 구현하는 꿈과 소망을 구현합니다.

최근 일고 있는 지구상의 변화는 이와 같은 경희의 노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교육혁명”입니다.

Massive Open Online Courses^{MOOC}와 같은 지구적 교육망은 전 세계 젊은 학생과 시민의 무한한 배움의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경희학원도 지난 십 수 년 경희사이버대학을 통해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지구적 소임을 위한 열의와 함께 시공을 초월한 세계를 연결하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빌 게이츠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이사장은 전 세계 청년들에게 페이스북을 통한 교육모델 공모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하버드, MIT의 EdX, Coursera와 같은 온라인 학습 공간은 전 세계 수백, 수천만 네티즌의 접속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고 있는 고등교육과 IT의 결합은 대학사회의 전혀 다른 차원의 공적 영역을 확장합니다.

미래를 이끌 세계 청년과 시민의 새로운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온라인 고등교육 혁신의 또 다른 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개별적 노력에서 ‘지구협력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유엔과 대학사회가 힘을 모으면, 우리 모두의 꿈인 더 나은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온·오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류공동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은 'UN 세계시민'을 지향해 온 유엔의 목표이자, 학술의 공적 가치를 추구해 온 고등교육기관의 궁극 목표일 것입니다.
UN과 고등교육기관이 함께하면, 이 목표 실현은 내일을 열어갈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경희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 수강생들이 인권과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국어대사전 5개 어휘의 어의를 바꾸고, 학내 에코 캠퍼스 운동을 벌였습니다.
소비자 권익 신장을 위해 매장의 불공정 영업 행위를 개선하는 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청소년기 고아원에서 자라며, 구두를 닦고, 독학으로 짬짬이 성악을 익혔던 경희사이버대 입학생 한 사람은 국내 방송 콘 테스트에서 수상한 후, 졸업식 석상에서 축가를 불렀습니다.
축가 후, 그 학생은 "이젠 불우했던 자신이 학업에 매진해 지식과 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차례"라는 인사말로 객석에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들 모두 21세기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연민과 유대의 지구적 인재상'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경희는 제2차 World Civic Foru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개최될 이 포럼에선 "미래문명과 고등교육"의 새 역할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온·오프 하이브리드의 창조적 배움과 소통의 공간. 그 공간과 함께 더 나은 삶, 더 나은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지향하는 대학과 세계, 학습과 실천의 초탈적^{超脫的} 전환^a transcendental turn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역사적 현실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그 의존성이 미래의 가능성을 소진하진 않습니다.
미래의 또 다른 절반은 우리의 상상과 창조로 열립니다.
그 여정에, 더 나음을 향한 UN과 대학의 열정이 함께하면, 인류는 또 다른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스트 MDGs 시대'를 준비하는 UN,
상아탑과 전문교육을 넘어 '전일적 학습'^{holistic learning, transdisciplinary education}을 준비하는 대학사회,
이 둘의 창의적 결합은 지구시민의식과 인류사회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갈 것입니다.

4.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32주년 기념 Peace BAR Festival 개최식

환영사 | 2013년 9월 26일

문명과 고등교육 - 큰 배움을 찾아서

반갑습니다. 자리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신 반기문 UN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메시지 전달을 위해 경희를 찾아주신 UNAI 라무 다모다란 Ramu Damodaran 국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학술회의의 발제를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Dzulkifli Abdul Razak 총장님께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합니다.

2년 전 UN과 경희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세계평화의 날 30주년을 기념해, 유엔본부와 이곳 평화의 전당에서 “Give Peace Another Chance”란 주제를 다뤘습니다.

아직 기억이 새롭습니다.

서울 아침 7시, 뉴욕 저녁 8시. 두 도시에서 동시 개최된 회의에서 5천여 청중과 발표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인류의 영원한 여망인 ‘평화의 미래,’ ‘대학의 미래’를 논했습니다.

오늘 세계평화의 날 기념 학술회의는 2년 전 회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문명과 고등교육’의 미래를 다룹니다.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변화와 변전을 거듭하는 문명. 그 문명의 한 축을 이루는 고등교육.

문명과 교육의 상관관계에 관한 깊은 성찰은 인간과 세계의 미래를 구성하는 근간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방향성을 상실할 때, 우리는 재앙을 경험하곤 합니다.

앞서 반기문 총장께서 언급하신 파키스탄 소녀 말랄라 Malala Yousafzai 양 이야기는 왜 문명과 교육이 인간의 기본권 증진을 향해 한결같은 길을 걸어아하는지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말랄라 양은 2009년 여성과 어린이의 교육권을 주장하다 15세 어린 나이에 피격됐습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 슬픈 운명에도 불구하고, 말랄라 양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UN에서 전 세계를 향해 외쳤습니다.

“모든 소녀, 모든 아이가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은 책과 펜을 두려워합니다.”

이 슬픈 이야기는 문명의 어두운 그림자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총과 폭력의 문명. 문명의 또 다른 이 모습은 인간의 기본권을 가로막는 인간의 마음이 종식되고, 인간적 가치를 더욱 고양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한다는 역사의 오래된 교훈을 새삼 일깨웁니다.

고등교육기관은 더 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육, 연구, 공적봉사를 통해 평화로운 문명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대학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 현대교육의 흐름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인간적 가치보다는 경쟁적 개인과 사회가 갖춰야할 지식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한 경제 번영을 강조합니다.

이 추세와 함께, 오늘의 고등교육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평화의 날 32주년을 맞이해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가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학문적 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생존과 욕망을 위한 개인의 성취와 경제 번영을 넘어, 더 나은 인간의 문명, 큰 배움의 길을 열었으면 합니다.

근래 들어 과학기술의 진전과 함께 지구적 ‘교육혁명’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열린 온라인 교육’ massive open online courses의 출현과 함께 인간과 세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말랄라 양의 간절한 소망과 함께, 온 인류가 안고 있는 테러와 폭력, 인권과 복리, 자유와 평화 같은 인류의 보편 의제가 새롭게 조명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미래는 구하는 자의 몫입니다.

그 미래가 인간적 가치를 지향할 때, 성취의 가능성은 한 발짝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우리 대학 지구사회봉사단 Global Service Corps과 UNAI ASPIRE Kyung Hee 학생들, 그리고 타 대학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이 열립니다.

미술대학 학생들은 “지구평화를 꿈꾸는 예술행동”을, 음악대학, 무용학부 학생들은 “가면무도회”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두 경희의 오랜 염원인 “학술과 평화”의 미래를 위한 행사입니다.

그간 행사를 위해 열정을 쏟은 우리 학생들과 2013년 Peace BAR Festival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교수, 교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생각하는 대학의 근본 - 개교 65주년을 맞이하며

올 한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마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획하신 일 다 이루셨는지요?

새해를 맞아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우리 학생들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학생회 대표들과 간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내 식당에서 오랜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학생들이 갖고 있는 진솔한 생각과 문제의식을 접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총장님은 등록금 문제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제 생각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2년 전 우리 대학은 ‘미래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수, 학생, 교직원 대표가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핵심은 배려하고, 존중하는 대학문화입니다.

구성원이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초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학발전을 위해선 “공감과 합의”가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경희의 교훈은 “학원, 사상, 생활의 민주화”입니다.

‘민주화’는 분분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과 입장을 존중합니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오늘 경희의 이런 전통과 함께, 대학의 근본에 관한 몇 가지 생각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대학의 문호’와 학생들의 ‘영예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철학과 기초에 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서울 소재 대학 총장님 몇 분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요 대학들이 학생 선발에 변화를 기하면 사교육으로 얼룩진 사회풍토를 바꿀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사회인과 대학인 모두가 오랜 세월 숙의를 거듭해온 사안입니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대학 관문의 바른 길이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엔 사교육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학입시 철학입니다. 이 나라엔 1주일간 시행되는 바칼로레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칼로레아는 첫날 철학을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사유의 깊이를 알아볼 수 있는 문항을 던집니다. 짧은 문항을 통해 학생의 인생관, 사회관, 세계관을 묻습니다.

물론 이 제도에도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접했던 프랑스 고교 교재는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교재는 우리나라 대학과 대학원 학생이 읽어도 될 만한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는 매우 평범한 삶의 근원을 향합니다. 자신의 삶과 교실의 학습에 충실하면, 또 다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도 될 삶의 근본 문제를 다룹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 고등교육에 준비된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셈입니다.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고등교육의 존재이유는 무엇일까?
제 자신도 우리 사회 '정론'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학이 개인과 사회, 인류에 기여하는 학술의 전당으로 다시 서야한다는 점입니다.
더 나은 제도를 통해 미래의 주역이 자신의 삶과 사회를 성찰하는 식견과 소양, 시민성과 전문성을 쌓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교육은 대학이 변할 때 정상화됩니다.
대학의 변화는 사회와 정부 인식이 바뀔 때 힘을 받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변화를 일궈내는 일.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대학의 근본에 관해 숙고해야 할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대학의 영예제도입니다.
학문적 성취와 관련된 학생들의 영예와 보상 제도입니다.
국내 대학들은 경쟁적 학문 풍토 속에서 이 제도를 이어갑니다.
'경쟁적 우월' 위주의 장학제도를 시행합니다.
탁월한 학문적 성취는 개인과 사회, 세계 발전에 기여합니다.
그런 만큼 대학이 이를 숭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경쟁에 편중된 학사제도엔 문제가 있습니다.
몇 점 차이로 진입 여부가 결정되는 대학의 관문.
그 관문을 통과한 후에 이어지는 학점 위주의 영예와 보상.
그런 제도와 문화 속에 과열 경쟁이 일어납니다.
경쟁을 위한 경쟁이 만들어집니다.

대학의 근본 소명은 학문의 깊이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학문적 깊이는 경쟁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학문은 '경쟁競爭'보다는 '수신修身'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깊은 성찰과 탐구, 진리를 향한 치열한 노력을 통해 쌓고 또 쌓는 것이 학문입니다.
그 축적을 통해 개인과 사회, 세계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학문입니다.
그런 소임을 다하기 위해 대학은 단순 경쟁을 지양해야 합니다.
학문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나서는 열정과 노력에 더 힘을 실어야 합니다.
몇 점 차이에 좌우되는 대학의 영예와 장학제도는 긴 호흡이 필요한 학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 깊이에 전념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합니다.

최근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향학열을 위한 정부지원이 늘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대학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하며, 시간에 쫓겨 학문에 매진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변화가 더 필요합니다.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자신과 사회, 세계의 성취를 이루려는 학생들을 더 도와야 합니다.

정부와 대학, 그리고 사회가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몇 달 전 출판사로부터 신간 추천사를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해외 대학의 종신교수로 재직 중인 80대 초반의 원로 교수입니다.

지난해 400여 쪽의 저서를 출판하셨습니다.

학계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그 원로 교수님을 우리 대학 특별강연에 초청했습니다.

올해 부득이 방문하지 못하신다는 답이 왔습니다.

아프리카 생태계 탐사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아쉬웠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만년의 대작 출판.

학술연구를 위한 오지 탐사.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학자상입니다.

학문의 끝없는 여정을 향해 정진하는 교수진.

그런 스승의 가르침과 함께 더 나은 자신과 사회, 세계를 꿈꾸는 제자.

또 그런 학문적 열정을 성심껏 지원하는 대학행정.

누구나 바라는 “대학다운 대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의 구체적 현실은 여전히 더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문제는 대학교육의 근간을 이룹니다.

대학다운 대학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미래 주역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후학을 위해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할 사회적 화두입니다.
이 화두에 우리의 중지를 모았으면 합니다.
공감과 합의의 미래를 열었으면 합니다.

내년엔 경희가 개교 65주년을 맞이합니다.
그간 경희는 대학의 근본 강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연구 부문에 괄목할만한 성취가 있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경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최초 탐사용 인공위성 시네마 2, 3호기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교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올해 국내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실천과 봉사 면에서도 경희인의 따뜻한 손길이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필리핀 태풍 피해 지역에 의료봉사단이 다녀왔습니다.
지구사회봉사단은 교육 기부 기관 중 가장 영예로운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구성원 모든 분들의 땀과 열정이 경희의 성취를 이뤘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 개교 65주년을 맞아, 올해의 성취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선도적 미래대학'의 새 지평을 함께 열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최근 소식 하나를 전하고자 합니다.
몇 주 전 세계대학총장회로부터 제안이 있었습니다.
내년 6월 열리는 이 기관의 정기총회에 경희의 참여를 요청받았습니다.
이듬해 영국 Oxford 대학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학총장회 창립 50주년 기념회의에도 경희의 역할과 참여를 제안해 왔습니다.
세계대학총장회는 경희의 설립자와 세계 대학 총장 몇 분이 발의해 1965년 Oxford 대학에서 출범했습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 '지구적 실천'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경희의 전통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대학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지향하는 경희정신과 맥을 같이합니다.
개교 60주년을 맞아 UNDESA와 함께한 세계시민포럼과 2년 전 UNAI와 공동 주관한 "평화에 또 다른 기회를"이란 국제

회의는 바로 이 정신의 지구적 표현입니다.

세계대학총장회의의 소식과 함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희의 꿈인 '선도적 미래대학' 건설을 위해 '지구적 고등교육'의 장을 구축하자는 제안입니다.

구성원이 함께하는 준비위원회를 결성했으면 합니다.

구성원의 참여 속에 경희가 사회를 향해, 세계를 향해, 문명을 향해 던질 '미래 고등교육'의 전범을 함께 준비했으면 합니다.

그 결과물을 우리가 함께 만들 <경희리포트>에 담아냈으면 합니다.

더 나은 문명을 위한 교육과 연구, 실천의 결합.

온·오프라인 결합을 통한 새로운 교육·학습의 장 구축.

이를 통해 21세기 고등교육의 초석을 놓을 수 있다면, 미래대학 건설의 꿈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계대학총장회의는 경희의 꿈을 세계에 알릴 기회입니다.

조만간 공론의 장을 통해 그 내용과 형식을 채워갈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경희는 그간 대학의 근본가치 강화를 위한 도전을 거듭했습니다.

그 위에 더 나은 문명의 미래를 향한 열정을 키워왔습니다.

개교 65주년을 맞아, 그 가치와 열정을 세계와 공유했으면 합니다.

UN의 **문명연맹** Alliance of Civilizations과 UNAI, 그리고 UN Global Compact도 경희의 지구적 노력에 협력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경희.

평화로운 인류의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경희.

그 전통을 이어온 경희가 미래 고등교육의 새 지평을 열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올해 대학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통계로 본 경희 2013

주요 지표 (서울·국제캠퍼스, 의료기관)

2014. 4. 1 기준

1. 재정 규모

단위: 억 원

구분	2013 결산	2014 예산
대학(서울/국제 통합공시)	4,621	5,074
산학협력단(서울/국제 통합공시)	1,598	1,711
경희의료원	3,011	3,240
강동경희대학교병원	1,854	2,040

* 2013 : 결산 기준 / 2014 : 추경예산 기준
천만에서 반올림

2. 교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교수	496	262	758
전임교원			
부교수	230	130	360
조교수	230	105	335
전임강사	-	-	-
총 교원수	956	497	1,453

3.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일반직	224	167	391
연구직	7	3	10
기능직	42	35	77
연봉계약직	-	10	10
총 직원수	277	215	488

4. 의료기관 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경희의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사무직	173	105
간호직	784	553
약무직	38	35
의료기사직	218	172
연구직	9	1
기능직	459	-
임상계약직 교원	74	65
전공의	573	198
기타	29	16
총계	2,357	1,145

5. 재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서울	국제	계
학부	12,819	12,147	24,966
대학원	5,665	1,694	7,359
총 학생수	18,484	13,841	32,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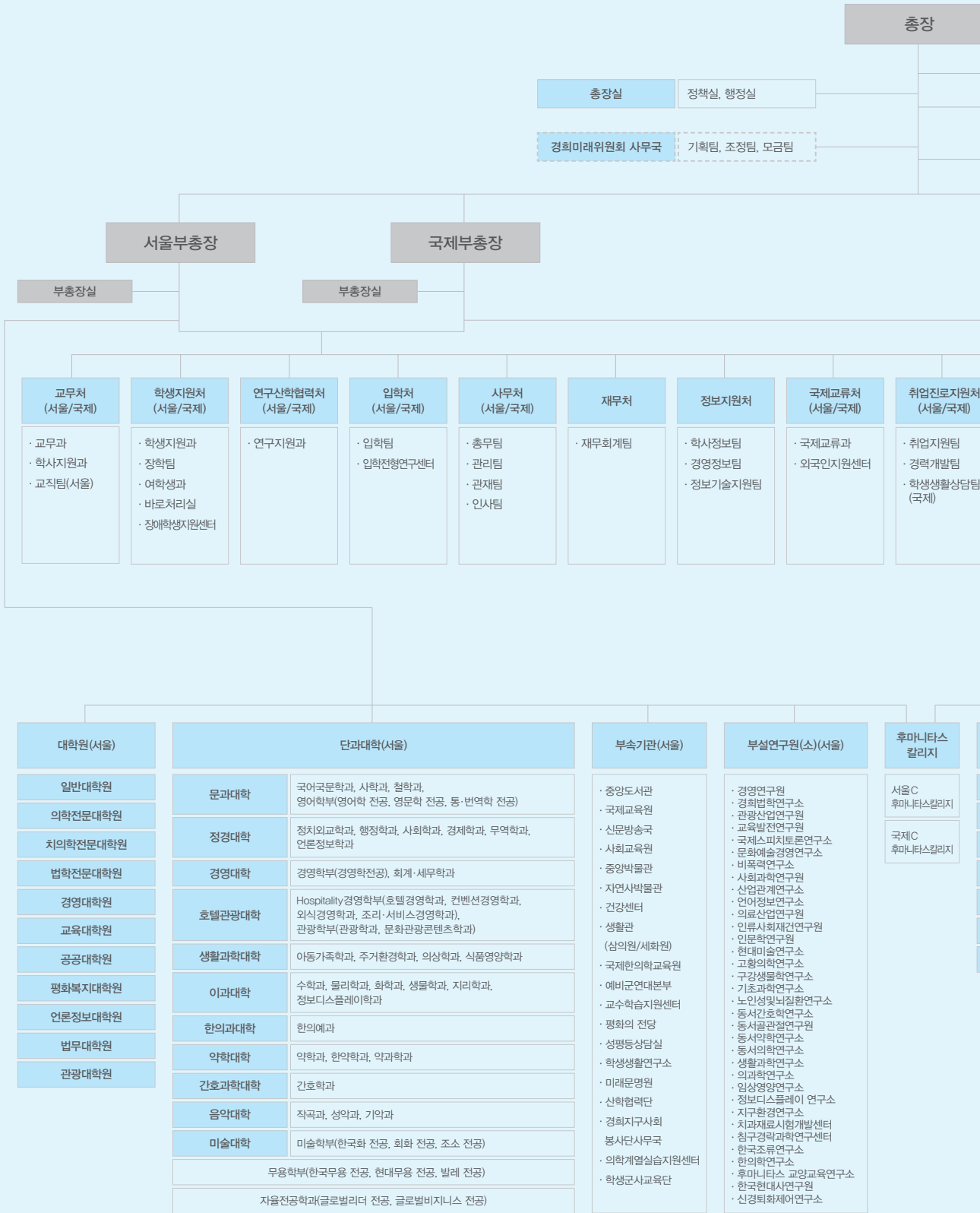
6. 취업률

단위: %

구분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
서울	50.3
국제	51.0
계	50.6

* 기준일: 201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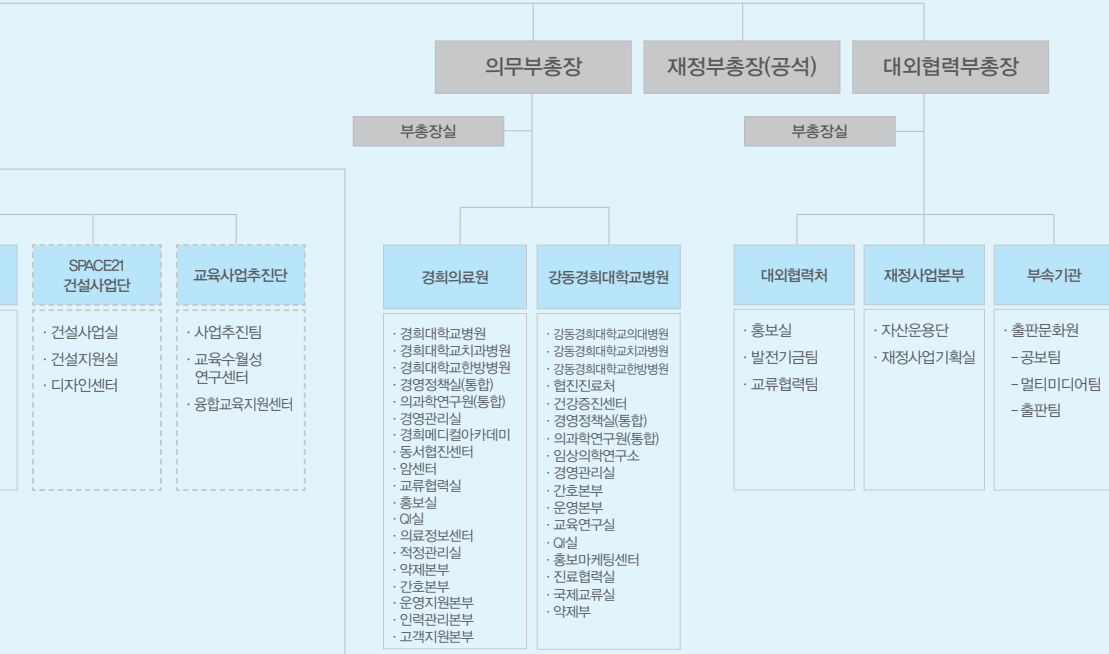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기구표



표시된 경희미래위원회 사무국, SPACE21건설사업단, 교육사업추진단은 임시기구임.

교무위원회, 발전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대학문화기획위원회 등

미래정책원	기획예산팀, 학술진흥팀
감사행정원	법무·회계팀, 행정감사팀, 음부조팀



대학원(국제)	단과대학(국제)	부속기관(국제)	부설연구원(소)(국제)
일반대학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원자력공학과, 화학공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건축공학과, 환경학및환경공학과, 건축학과	· 중앙도서관 · 신문방송국 · 글로벌평생교육원 · 건강센터 · 생활관 (우정원/제2기숙사) · 체육부, 체육교육관 · 공학교육혁신센터 · 천문대 · 연구·실험지원센터 · 예비군연대본부 · 교수학습지원센터 · 행정박물관 · 산학협력단 · 학교기업 (한방재료가공) · 원자력센터 · 경희지구사회봉사단사무국 · 학생군사교육단	· 국제지역연구원 · 레이저공학연구소 · 산학협력기술연구원 · 비교문화연구소 · 자연과학종합연구원 · 국제학연구소 · 생명지원과학연구원 · 예술디자인연구원 · 스포츠과학연구원 · 정보통신SoC연구소 · 식물대사연구소 · 멀티미디어기술연구소 · 융합지식연구소 · 디스플레이부품소재지역혁신센터 · 피부생명공학센터 · 응용분자과학연구소 · 제 2 외국어교육시스템연구소 · 아프리카연구소
동서의학대학원	전자정보대학 전자전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생체공학학과		
국제대학원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응용화학, 우주과학과		
체육대학원	생명과학대학 유전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한방재료공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원예생명공학과		
교육대학원	국제대학 국제학과		
테크노경영대학원	외국어대학 프랑스어학과, 스페인어학과, 러시아어학과, 중국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학과,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영미어문 전공, 영미문화 전공)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의류디자인학과, 디지털콘텐츠학과, 도예학과, 연극영화학과, Post Modern 음악학과		
	체육대학 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골프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태권도학과		



목련리포트

2014 경희대학교 연례보고서

발행인 경희대학교

편집인 목련리포트 편집위원회

발행일 2014년 6월 1일

발행처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www.khupress.com

khsd3080@khu.ac.kr

© 경희대학교, 2014

ISSN 2005-7539

서울캠퍼스 0244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8 ☎ (02)961-0114

국제캠퍼스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 (031)201-2114

광릉캠퍼스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179-69 ☎ (031)570-7012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